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대한민국
공군

GLOBAL & INSIGHT

06



공군IN

18



- 06 삼각지 논객 군가와 빨간 마후라
- 08 World-Wide Vision 야간기지 근무
- 12 Global AF 완벽한 선제기습을 통한 승리! 6일 전쟁의 모케드 작전
- 16 Leadership+ 스마트 시대 우리의 선택



- 18 기획특집 겨울에 더 따뜻한 공군!
- 30 Photo Sketch 사진으로 보는 '2011 공군 10대 뉴스'
- 34 포토프레임@AF
- 36 AIR FORCE MONTHLY 2011. 12. NEWS
- 40 생각하는 그림 친구야 힘내! 우리가 있잖아!

COVER STORY



하늘을 가르는 멋진 공군인들의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하늘을 날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일러스트 천국의숲 | 일러스트레이터

CULTURE 36.5

44



- 44 Hollywood English 리얼 스틸
- 46 인생은 아름다워 가난한 예술가의 크리스마스 이브 <라보엠>
- 48 Art in Everyday Welcome to the bathroom
- 50 Air-Supply 달인 김병만
- 52 Preview 12월의 문화행사

OPINION

54



- 04 Letters to the Editor 월간 「공군」 10월호를 읽고서
- 54 독자기고 40년 전 무공수훈을 다시 회상하며...
- 56 책마을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MONTHLY MAGAZINE

VOL. 402. 2011. 12

발행일자 2011년 11월 30일(통권 제402호) **발행인**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영훈 **편집감수** 중령 손경수
기획·편집 소령 조세영, 소위 류재영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960-7443~7445, 042-550-7443~7445)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QR 코드 안내

월간 「공군」은 모바일 시대에 발맞춰 독자들과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QR 코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도 독자의견 및 퀴즈 응모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R 코드는 표지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10월호를 읽고서

L E T T E R S T O T H E E D I T O R

월간 「공군」은 **라운**이다. 라운은 즐거움이라는 순우리말로 월간 「공군」은 매화가 기다려지는 흥미진진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라운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집> '특집 앙케트, 400명에게 물었다! 공군병사들의 인식MAP' 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기존의 공군지에서 볼 수 없었던 기획이라서 더욱 특별했던 것 같고, 공군장병과 여대생들이 생각하는 바가 상이하게 달라 그 점이 더 재밌었습니다. - **충남 천안시, 김승수**

02 월간 「공군」은 **축제**다.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월간 「공군」을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매달 설레는 맘으로 발행하니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자의 만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편집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특집> '월간 「공군」 A to Z'에서 편집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니 더 생생한 애환이 느껴집니다. 환절기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호 역시 기대하겠습니다. - **인천 연수구, 김진주**

월간 「공군」은 **휴가**다. 일상에 지친 공군인들의 몸과 마음을 한 달에 한 번씩 재충전시켜 주는 월간 「공군」! 상식·교양·문화 등 마음의 양식과 다양한 간접체험까지! 월간 「공군」과 함께라면 남들이 하와이 가는 휴가도 부럽지 않네요~ 이번 호에서는 역시 <기획특집> '특집 앙케트, 400명에게 물었다! 공군병사들의 인식MAP' 이 재밌었습니다. 또래 20대 집단과 제 생각도 비교해볼 수 있었고, 여대생들이 공군인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뿌듯함과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 **경기 성남시, 박정범**

04 월간 「공군」은 **샘**이다. 공군의 인물부터 훈련현장, 역사, 우리 장병들의 생활과 의식까지 400호가 되기까지 무한한 소재와 내용이 마르지 않은 '샘' 처럼 쏟아져 지치고 힘든 공군장병들의 눈과 머리를 적실 수 있게 해주니까! 저 역시 중학교 때 학교 신문부를 해봐서인지 <기획특집> '월간 「공군」 A to Z'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공군장병들을 위해 계속 수고해주시길 바랍니다. 400호 발간,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 **강원 원주시, 오현진**

월간 「공군」은 **비상**이다. 대한민국 공군이 진행한 국민조종사 수송기탑승 체험 이벤트에 당첨되어 대한민국 창공을 멋지게 구경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군이 한 마리 새처럼 비상하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한 하루였습니다. 이때 월간 「공군」을 처음 만났지만 앞으로 꾸준히 사랑하겠습니다. 월간 「공군」 4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경남 창원시, 이태권**

06 월간 「공군」은 **인수·인계**다. 근무지에서 항상 월간 「공군」 최신호가 나오면 근무자들끼리 인수·인계를 확실히 합니다. 다른 전우들은 어떤 생활을 하나? 매달 공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월간 「공군」을 통해 모든 걸 배우고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필승!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집> '특집앙케트, 400명에게 물었다! 공군병사들의 인식MAP' 이 재밌었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군장병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론: 군인은 다 똑같아... 후우~ - **서울 영등포, 고성주**



Global & Insight

삼각지 논객 군가와 빨간 마후라

World-Wide Vision 야간기지 근무

Global AF 완벽한 선제공습을 통한 승리! 6일 전쟁의 모케드 작전

Leadership+ 스마트 시대 우리의 선택



군기와 빨간 미후리

군가와 응원가·교가는 공통점이 있다. 부르고 듣는 사람들의 단결심을 고취시킨다는 점이다. 합창하면 힘이 솟고 가슴이 뗌다. 가령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부산 갈매기'를 부르면서 롯데 팬으로서 일체감을 느낀다.

교가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학교가 최고'인 이유가 노래 가사에 다 들어 있다. 북악산이 됐든 삼각산이 됐든, 인근에 가장 유명한 산의 정기를 다 이어받은 학교이니 최고가 아니면 오히려 이상하다.

또 근처에 무슨 강이라도 있으면 바다를 향해 힘차게 흐르는 강처럼 '우리 학교'가 이름을 세상에 떨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다 보니 명문 학교의 교가치고 유명한 산이나 강이 들어가지 않은 학교가 없다. 그나마 배재학교의 '배재학당교가'가 예외라면 예외가 되겠다. 배재학교 교가는 1882년 배재학당을 설립한 아펜젤러 박사가 자신의 모교인 미국 프린스턴 대학 응원가에 가사를 붙여 만들었다.

서양에서는 클래식 정통 음악을 통해서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영웅을 찬양해 왔다. 차이코프스키는 조국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을 물리친 1812년을 기념해 '1812 서곡'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뭐니뭐니해도 음악이 지니고 있는 무서운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은 군가다. 수많은 행진곡과 군가는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했다. 돌격 나팔소리는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군대에서 단결심은 최고 덕목 가운데 하나다.

군대는 군가를 통해 하나로 뭉친다. 상당수 나라의 국가가 군가에서 유래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미국의 국가인 '별무늬 깃발(Star Spangled Banner)'도 일종의 군가다. 참고로 여러 사람이 미국의 국가 제목을 '성조기여 영원하라(Stars and Stripes Forever)'로 잘못 알고 있다.

찬송가에도 군가가 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로 시작되는 찬송가는 제1차 세계대전 때 군가로 쓰이기도 했다.

미국 공수부대 상사 배리 새들러는 반전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에 '그린 베레의 노래(Ballad of the Green Beret)'라는 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 앨범은 순식간에 수백만 장이 팔리면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사회 분위기는 반전이었지만 '그린 베레의 노래'는 경쾌한 행진곡풍이면서 가사가 듣는 이들의 낭만 지향성을 자극한 것이 맞아 떨어졌다.

우리나라에도 경쾌한 군가가 많다. 공군의 경우에는 ‘공군가’, ‘빨간 마후라’, ‘조종사의 노래’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극작가 한운사 씨가 작사했고 황문평 씨가 작곡한 빨간 마후라는 영화의 주제가가 된 케이시다.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구름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갈 청춘이란다.”

‘빨간 마후라’는 1964년작 한국 영화였다. 이 영화는 공군 전투기의 하늘을 나는 장면과 시원한 활주로를 당시 귀했던 컬러필름을 통해 관객들에게 더욱 생생히 전달됐다. 빨간 마후라는 일본에 최초로 수출된 국산영화로 아시아 영화 역사에서도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언급되고 있다.

빨간 마후라에는 6·25전쟁 당시 강릉 전진기지를 배경으로 용감하고 터프한 나관중 대위(신영균)와 그의 동료 배대봉 대위(최무룡)가 등장한다. 이 영화에서는 배 대위가 술집 마담 지선(최은희)과 결혼하지만 그는 전사하고 절친한 친구가 지선을 사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애절한 로맨스를 가미시키고 있다.



이제 ‘빨간 마후라’는 파일럿을 지칭하는 공군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그 빨간 마후라(공군 조종사)를 주제로 하는 공중 액션 블록버스터가 다시 개봉박두다. 하늘에 인생을 건 전투기 조종사들의 열정과 사랑을 그린 작품 ‘비상’이 그것이다.

전쟁액션 영화로 출연진도 화려하다.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한 비(정지훈)와 여배우 신세경 등이 출연한다. 신영균과 최무룡이 등장했던 신상옥 감독의 작품 ‘빨간 마후라’와 비견할 만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만 빨간 마후라에 등장하는 전투기가 F-86 세이버였다면 올해 찍는 공군 영화에서는 F-15K 전폭기가 등장한다.

하늘을 주름잡는 조종사들이 등장하는 영화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쿨’하다. 얼마나 멋있었으면 중국 관영매체인 CCTV가 지난 10월 인민해방군 공군의 훈련 과정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탐 크루즈가 출연한 1986년작 할리우드 영화 ‘탑건’에 등장하는 미사일 발사 장면을 살짝 끼워 넣었겠는가.

군 관련 영화는 특히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다. 실제로 공군에서는 1964년 빨간 마후라가 개봉된 후 공사 경쟁률이 치솟았다. 지원자들 역시 자질이 매우 우수한 고교생들이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입교한 공사 17기생 중에서 2000년대 이후 공군 후배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는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이다. 현재 공사총동창회장이기도 한 이한호 예비역 대장에 대한 불멸의(?) 이야기는 여럿 전해지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 하나만 소개해본다.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그는 당시 공군 최고의 정예부대였던 제19전투비행단의 단장으로 보임됐다. 그는 취임사에서 “북한만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도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사시 우리가 그들에게 불바다가 무엇인지 보여줍시다.”라고 결연하게 ‘일전불사’의 의지를 밝혔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진정 용감한 군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만큼 그는 용기와 소신을 겸비한 장군이었고 지금도 많은 후배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

그가 공사에 입교한 것은 1965년이였다. 그는 창공을 주름잡는 빨간 마후라를 대구 영화관에서 본 후 소위 ‘감격’ 먹고 ‘파일럿의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런걸 보면 미국의 해군항공사관학교를 배경으로 리처드 기어와 데브라 윙어가 출연한 영화 ‘사관과 신사’ 까지도 군의 조종사 양성에 도움을 줬는지 모른다. 한국 영화 ‘비상’ 역시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 영화를 통해 제2, 제3의 이한호 장군을 탄생시킬 지 두고 볼 일이다.

이처럼 군가는 부르는 사람들의 감정을 고취시키면서 단결심을 불러일으킨다. 또 반전영화가 아니라면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대부분의 전쟁영화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군에 대한 강력하고도 우호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미군이 전담 장교까지 두고 할리우드 영화의 시나리오를 검토한 후 항공모함과 전투기까지 동원해 영화 촬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F**

※ 본 기고는 공군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야간기지 근무 Nighttime on Base

당신이 잠든 사이에 공군인들은...
As you sleep, many Airmen are on duty

어제 저녁, 대부분 공군인들이 가족들과 식사를 위해 오순도순 모여 있을 시간, 조슈아 패리쉬(Joshua Parrish) 하사는 아리조나 주 데이비스-몬테인 공군기지 주기장에서 자신의 업무인 네 번째 A-10 Thunderbolt 항공기를 묵묵히 점검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기지 내 다른 한편에서는 제355헌병대 소속의 클라리즈(Nathan Claridge) 하사와 루카스 트립(Lucas Tripp) 병장이 인근 지역인 유마(Yuma) 시 경찰을 돌고 있었으며,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샘 휴스턴(Sam Houston)기지의 브룩기지 병원에서는 크리스탈 배론(Christal Barron) 중위가 신생아 집중치료 병동에서 아기들을 돌보고 있었다.

이는 각 도처에서 연중 내내 이루어지는 공군 장병들의 야간임무 중 일부 모습에 불과하다. 그들은 기지 도로를 정찰하고, 부상자 및 환자를 치료하며, 항공기를 정비 및 운영하고, 세계 곳곳의 주요 파병지에서 연장근무를 수행한다.

“군인은 잠들지 않습니다.” 네브라스카 주 오프트(Offutt) 공군기지, 55정비대대의 생산 관리감독관인 브랜트 브레이디(Brent Brady) 상사가 전했다. 자신도 교대근무 대상인 그는 “많은 외부 사람들, 심지어는 공군인들도 이러한 야간 근무자들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우리는 항공기가 출격 준비를 갖추기 위해 무수히 많은 정비활동을 수행합니다. 야간 근무자들은 항상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55정비대대의 생산 관리감독관인 브랜트 브레이디 상사가 네브라스카 주 오후트 공군기지의 주기장에서 RC-135 V/W 리벳 조인트 옆을 지나가는 모습

다른 이들이 안전하게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우리들을 보는 이들은 게이트 초소의 헌병들뿐입니다. 그때 기지는 매우 조용하죠.”

아리조나 주 방위군 소속 윈디 헨드릭(Windy Hendrick) 소령이 근무하는 곳으로 가보자. F-16 Fighting Falcon 조종사인 그녀는 매월 수차례씩,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저희 기지는 야간에도 조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리조나 주, 투산에 소재한 162전투비행단의 교관조종사인 헨드릭 소령이 말했다. “A-10 항공기는 야간 임무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자주 야간비행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HC-130(Kings) 항공기와 구조대대가 함께 주둔하고 있으며, 미 정부기관인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마약단속청)와 국경정찰국(Boarder Patrol)의 헬기 또한 운항 중입니다. 그리고 563구조전대의 HH-60(Pave Hawk) 헬기 예비부대 역시 이곳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분주하지 않을 리 없죠.”

깜박이는 불빛과 더불어 요란한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하면, 경보발령시설에서 F-16 조종사들을 호출하는 신호이다. 헨드릭 소령은 소란스런 비상벨을 듣고, 긴급히 뛰쳐나간다. 이 상황이 연습상황인지, 실제상황인지는 전투기에 앉아 준비를 완료하기 전까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 이내에 출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지 밖으로 외출할 수 없습니다.” 헨드릭 소령이 전했다. “이러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만 수초 이내 항공기를 출격시켜 비행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내대기 생활에 많이 적응되어 불편함은 없지만, 이러한 경보는 외부 위험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기지 내 다른 곳, 패리쉬(Parrish) 하사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교대로 근무하는 358정비부대에서는 이러한 사이렌이 더욱 크게 울린다. 야간 근무교대는 대부분의 정비활동이 마감될 때 주로 이뤄진다. “제트기가 착륙을 하게 되면 항상 흡입(Intake) 검사와 배기(Exhaust)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항공기 엔진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사이렌 소리는 더욱 큼니다.” 정비요원인 패리쉬 하사의 말이다. “이곳이 조용해지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란 뜻입니다.”

야간업무 시 정비사들은 철저한 정신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 아리조나 주의 투산(Tucson) 지역은 야간시간에 바람이 거세지므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정비사들은 주기장에 날아다니는 쓰레기 봉지 등의 이물질들을 가리켜, 투산 지역에 흔히 굴러다니는 풀의 일종인 텀블weed(Tumbleweed)라 부른다. 특히 외부에서 야간에 일하는 모든 인원들은 아리조나의 야생 환경을 조심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가끔 전갈을 비롯하여 타란툴라 독거미, 블랙 위도우(Black Widow) 흑거미, 브라운 리클루스(Brown Recluse) 거미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A-10 엔진 작업을 할 때 자주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번개 역시 주의해야 한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야간에 일하는 요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스스로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야간 교대근무를 할 때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스스로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패리쉬 하사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댄싱 위드 더 스타(Dancing with the Star)” 등의 방송을 보며 쉬는 동안, 신생아 집중치료 병동은 소란스런 패리쉬 하사의 환경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 배론 중위를 비롯한 간호사들은 아기들과 가끔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를 바라보며, 정숙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의 아기들은 평균 체중이 1.5kg 이하다. 그러나 이 아기들이 태어났을 시에는 겨우 0.4kg에 불과했었다.

“낮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를 비교한다면 밤 시간이 좀 더 조용하죠. 아기들은 이때 쉽게 잠들곤 합니다.”

하지만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간호사들에게는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단점이 있다. 의사들은 주로 낮에 진료를 보기 때문에 주간 근무 간호사들은 의사들에게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야간 근무자들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가 아기의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배론 중위의 말이다. “의사들은 오전에 진료를 하고 계획을 설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들은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합니다. 따라서 야간 근무자들이 직접 의사와 치료의견을 주고받지 못하더라도, 의사들이 야간 근무자들이 세운 치료계획을 임의대로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난 뒤 그녀는 수많은 약속들을 -중대 및 대대 미팅, 아이들과 방과 후 활동 그리고 자신의 취침시간 등- 낮 시간 동안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

“(주간 근무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는 항상 자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배론 중위는 병원에서 활용하는 파나마 스케줄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우리는 낮 시간 동안 취침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한다는 것을 대부분 잘 알지 못하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재울 시간에, 헨드릭 소령은 비상경보센터의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체육관에는 농구장, 배구 코트 그리고 피트니스 트레이닝 및 에어로빅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그녀는 해군제독 출신인 전 합참 의장, 마이클 멀렌이 개발한 21세기형 “토탈 포스 피트니스(Total Force Fitness)”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한다고 한다.

“이제야 많은 이들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의 생활이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 말이죠.” 헨드릭 소령이 말했다. “물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이 발령될 시 숙면에서 깨어나 몇 분 이내에 긴급출격을 하는 일들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이나 식습관은 조절할 수 있죠. 이는 육체적인 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깊은 잠이나 편안한 휴식 중이라도 더 잠에서 빨리 깨어날 수 있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몇 분 이내에 긴급출격이 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공군장병들이 꿈나라에 가 있는 야밤, 358항공정비부대 패리쉬 하사의 교대근무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을 무렵, 클라리즈 하사와 트립 병장은 데이비스-몬테인 기지의 도로를 계속 순찰 중이다.

그들은 임무수행 중 잠이 오면, 창문을 내리거나, 커피를 마신다. 졸음은 1일 2교대 근무 중 자정에 자주 찾아온다.

“저는 미국 내에서는 항상 야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트립 병장의 말이다. “개인적으로 밤 시간이 조용해서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인해 호출이 된다면, 그런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야간 근무는 매일 매일이 다릅니다. 주말에는 바비큐 파티 등 야외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많아 주택가는 더욱 분주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지의 다른 지역은 대부분 부대시설이나 건물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매우 한적합니다.”

새벽 3시경, 패리쉬 하사는 부인의 출근을 위해 차까지 걸어 배웅을 한다. 본인은 전날 오후 11시까지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 피곤한 상태이지만, 그가 반드시 지키는 일 중 하나이다.

“전 보통 새벽 3시까지 잠들지 않습니다.” 패리쉬 하사가 말한다. “제 부인은 오전 4시부터 정오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는 시간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약 제가 주간 근무를 할 때는 집에 오후 3시쯤 귀가해서, 오후 시간과 저녁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낼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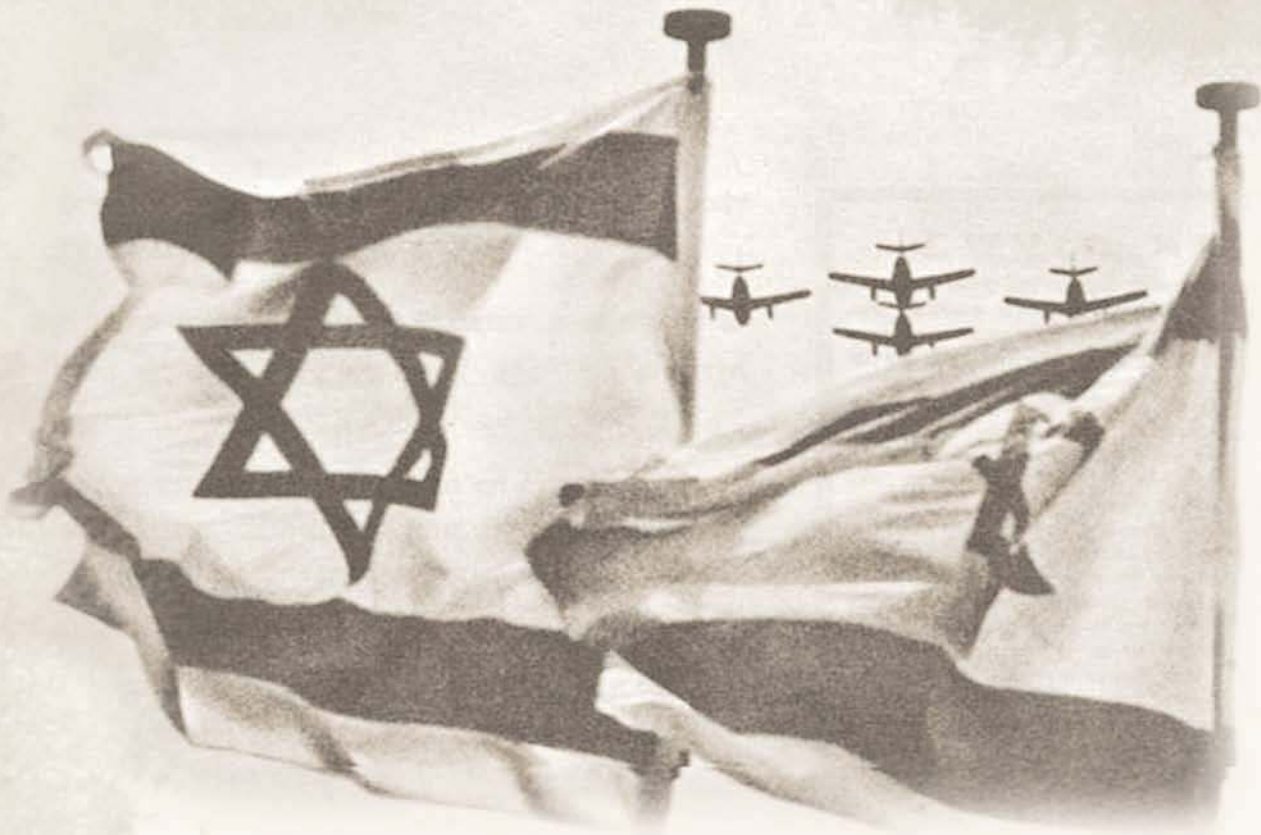
아침이 되면, 야간 근무를 마친 공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휴식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휴식시간에도 야간 근무자들은 여러 개인적인 일을 챙겨야 한다. 그래서 야간 근무자들은 다음 야간 근무 스케줄까지 임무 수행준비를 마치도록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재충전을 하려고 노력한다.

야간 임무를 담당하는 공군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있어 기지 전체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도 그들은 주간 근무자들과 교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또다시 다음 야간 근무를 준비한다. **AF**



1	2
3	
4	

1. Fighting Falcon 전투기의 조종사인 원디 헨드릭 소령이 긴급 출격 명령에 대기하며 항공기에 앉아있는 모습. 헨드릭 소령은 주 방위 공군으로서, 매달 수차례씩 24시간 비상대기 근무를 선다.
2. 사막의 지킴이, 355헌병대대 요원들이 아리조나 주 투산 소재, 데이비스-몬테인 공군기지에서 12시간 주기 교대근무를 시작 하기 전 중대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는 모습
3. 355헌병대대의 네이튼 클라리크 하사(왼쪽)와 루카스 트림 병 장이 아리조나 주의 투산에 소재한 데이비스-몬테인 공군기지 인근인 유마(Yuma) 시 지역을 순찰하는 모습
4. 네브라스카 주 오푸트 공군기지의 55정비대대의 생산 관리감독관인 브랜트 브레이디 상사가 RC-135 V/W 리벳 조인트 옆 에서 항공기 관련 양식을 살펴보고 있다.



완벽한 선제공습을 통한 승리! 6일 전쟁의 모케드 작전

1956년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이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이스라엘과 영국 및 프랑스군은 이집트를 공격한다. 이른바 2차 중동전쟁(수에즈 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UN의 중재로 전쟁은 3개월 만에 휴전을 맞이했으나, 이스라엘과 아랍국들 사이에는 불안정한 평화가 계속되었다. 8년 뒤 1964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결성된다. 이스라엘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랍국가들이 PLO에 대한 대표권을 승인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분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또한 PLO의 무장조직들이 아랍국가들의 지원하에 이스라엘에 대한 치열한 공격을 반복하자, 이스라엘은 자위권 발동을 위하여 시나이 반도에 대한 공격 강도를 점차 높여갔다.

이에 반발한 이집트는 1967년 5월 중순 이후,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의 정도를 높여갔다.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은 티란 해협을 봉쇄하고 이스라엘의 해상운송로를 통제하고자 했으며, UN 평화유지군을 시나이 반도에서 추방해버렸다. 나세르와 다른 아랍지도자들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협박을 계속했다. 미국과 서방국들이 중재에 나서자, 나세르는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 군사동맹을 맺으며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이런 대치상태가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로 받아지는 것을 경계한 이스라엘은 결국 공세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제공격뿐이었다. 그리하여 1967년 6월 5일 '모케드' 작전을 실행하게 된다.



이스라엘 공군은 훈련을 반복하며 '모케드' 작전을 준비해왔다. 특히 젊은 조종사들은 혹독한 훈련 속에서 강한 군기와 사기를 유지했다.

선제기습을 위한 공습작전 '모케드'

모케드 작전의 개요는 당시 공군사령관이던 댄 톨코프스키 장군이 1963년부터 구상을 해왔던 것이다. 후임 공군사령관인 모티 호드 장군과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국방군 참모장은 이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이 작전계획은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이나 독일 공군의 소련 항공기지 공습 등 2차 세계대전의 성공적인 공습작전들을 본떠 만들어졌다.

하지만 모케드 작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이 들어맞아야만 했다. 첫째, 이집트 공군의 모든 항공기가 비행하지 않을 때는 활주로 근처에 전개하고 있어야 했다. 둘째, 항공기들이 비행하지 않는 시간이 많아야 했다. 다행히도 이집트 공군은 레이더 및 대공미사일 방어망을 신뢰해, 엄폐호를 구축하지 않고 항공기들을 활주로에 주기해놓고 있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군은 현대적인 공군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스라엘군은 B-17 폭격기나 F-51 무스탕 전투기 같은 2차 대전 시절의 프로펠러 군용기에 의존하여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1956년 제2차 중동전쟁 이후에야 우라강, 미스테르, 미라쥬 등 프랑스제 제트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과거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지만, 이 기체들은 당시 미국이나 소련이 이집트에 제공했던 첨단 제트기에 비하면 열세였다. 게다가 이스라엘 공군에는 대형 폭격기도 없었다. 어떤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이스라엘 공군의 항공전력이 이집트에 비해 열세일 것은 자명했다.

이집트의 공군력은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이스라엘에 비해 현저히 우위에 있었다. 특히 이집트 공군은 MiG-21 전투기를 100대 이상 보유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초음속 항공기는 미라쥬 III와 쉬페르

미스테르 B2 100대가 전부였다. 또한 이집트는 투폴레프 Tu-16이나 일류신 IL-28 폭격기를 보유했지만, 이스라엘은 폭격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체가 없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등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국가를 감안할 시, 이스라엘은 약 1/4의 항공력을 가지고 4개의 국가와 대항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스라엘에게 결론은 단 한 가지였다. 수량과 질적인 측면에서 우세한 적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지상에서 전멸시키는 것뿐. 모티 호드 장군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공중에서 전투기는 현존하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이다. 그러나 지상에선 완전히 무력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의 전략가들은 모케드 작전계획이 완벽히 수행되도록 세부전술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특히 적군의 활주로를 파괴해 적기를 이륙불능 상태로 만든 후, 손쉽게 파괴하는 전술을 채택했다. 1964년부터 이스라엘 공군은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반적인 믿음은 최대한 많은 활주로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활주로상의 교차로에 폭격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전혀 달랐다. 실제로 활주로의 교차점을 파괴해봐야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활주로마다 별도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공격이 이뤄져야 하며, 최초 작전계획보다 더 많은 항공전력을 투입해야만 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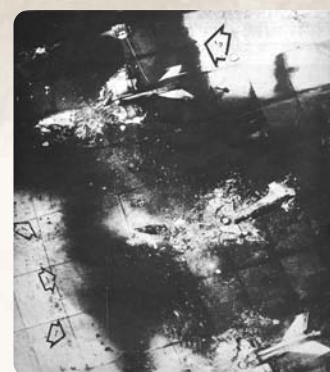
작전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공군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를 투입할 뿐만 아니라, 특히 귀환 후 무장재보급시간을 8분대로 단축해야만 했다. 당시 이집트 공군은 재급유 및 재무장에 평



이스라엘은 철저히 선제공습을 준비했다. 사진은 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 공군의 주력기종인 미라쥬 III 전투기(사진 왼쪽)와 아랍권의 주력기종 중 하나였던 MiG-17(사진 오른쪽)의 모습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은 미라쥬 III 전투기를 선봉에 세워 공습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기습에 아랍의 항공기들은 이륙조차 못하고 지상에서 소멸됐다.

군 8시간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없이 훈련을 반복했다. 한편 활주로 폭격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프랑스와 함께 새로운 180파운드 활주로 파괴용 폭탄, 듀란달(Durendal)을 개발했다. 듀란달은 로켓에 의해 추진되어 지상의 활주로에 충돌한 이후에 지연신관에 의해 폭발하는 폭탄으로 보통 너비 5m, 깊이 1.6m의 탄공을 만들어 활주로를 무력화시킨다.

한편 시나이 반도에 집중된 이집트의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해상으로부터 침투해야만 했다. 해상침투 도중에 항공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조종사는 절대로 무선침묵을 유지해야만 했으며, 기체를 해상에 버리고 탈출하도록 했다.

모케드 작전 개시

전쟁발발쯤 이스라엘 공군은 모두 240여 대의 작전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중에 약 200여 대가 전투기 또는 전투폭격기로 실제 공습임무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오직 12~15대의 전투기가 이스라엘의 영공에 남아 방공임무를 수행할 터였다. 그야말로 한 번의 공습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존폐를 건 도박이었다.

공습은 크게 3차 공습으로 이루어졌다. 제1차 공습에서 공습참가 기체들은 오전 7시 10분부터 7시 46분까지 순차적으로 이륙을 실시하여, 8시 15분경에 이집트에 도달했다. 이 시각은 이집트 공군조종사들이 한창 아침식사를 하는 때였다.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지중해로 비행하여 이집트 영공으로 침투했고, 일부는 홍해를 날아 이집트 내부로 침투했다. 이들은 11개의 이집트 항공기지를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가장 빠른 전투기 편대는 가장 멀리 있는 기지를 목표로 했다.

전운도 이스라엘의 편이었다. 이스라엘의 공습편대는 이집트군 레이더에 전혀 발각되지 않았다. 아질룬에 배치된 요르단군의 레이더가 공습부대를 식별해내고는 경보를 발령했다. 이 경보는 이집트 측에도 전달되었지만, 양측의 교신주파수가 틀려 결국 이집트 측에서는 경보를 전달받지 못했다.

한편 하킴 아메르 원수를 포함한 공습당시 이집트 군 수뇌부는 IL-14 수송기를 타고 공중에서 비행 중이었다. 그는 자신이 탑승한 항공기가 오인사격 받을 것을 우려한 아메르는 대공포 사용을 금지했다. 공습 도중 이 항공기는 결국 착륙에 성공했다.

처절한 공습결과

모케드 작전의 제1차 공습에서 시나이와 이집트에 위치한 11개소의 항공기지들이 모두 공격받았다. 이스라엘군은 약 200여 대의 적기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군 미사일 대공미사일 기지와 통신중개소를 모두 초토화시켰다. 제1파에는 약 180여 대의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참가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공중전에서 이집트 공군기 9대를 격추시켰으며, 제1파 공격에서 10대의 항공기를 잃었다.

제2차 공습에서 이스라엘군은 이집트 항공기지 16개소를 공격하여 이집트 공군기 100여 대를 추가로 파괴했다. 제2파는 오전 9시 34분경에 이륙을 시작하여 10시 34분에 귀환했으며, 무려 164소트의 임무비행이 실시되었다. 이미 2파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기습의 효과는 사라졌지만, 이집트는 아직도 자신의 패배를 몰랐다. 오히려 카이로에서는 군중들이 모여 이집트군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고, 이는 이집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단, 3시간의 공습으로 무려 300여 대의 적기가 파괴된 것이었다. 파괴된 기체들 가운데 286대가 전술기, 즉 전투기와 폭격기들이었다. 이외에도 30여 대에 가까운 지원기(헬기와 수송기 등)가 파괴되었다. 아래는 제1, 2차 공습으로 파괴된 항공기들의 목록이다.

기 종	대 수
MiG 21 요격기	90
MiG 19	20
MiG 17	75
Tu-16 대형폭격기	30
IL-28 중폭격기	27
Su-7 전폭기	12

제3차 공습은 시리아, 요르단, 및 이라크가 목표였다. 정오쯤 이들 3개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가하자, 이스라엘은 반격을 위해 제3파를 출격시켰다. 제1, 2파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모든 표적을 사전에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전에 나섰다. 12시 45분에 이륙을 시작한 제3파는 약 100여 대의 전투기로 구성되었다.

요르단은 이집트의 공격소식을 듣고 소수의 전투기를 발진시켜 이스라엘의 네타니아 항공기지를 공격했다. 하지만 기지에는 2대의 수송기뿐이었고, 요르단기들의 귀환과 동시에 미라주와 우라강 전투기들이 반격을 가해왔다. 이 공중전에서 요르단은 헌터기 4기와 스타파이터 2기를 잃은 반면, 이스라엘은 우라강 1대를 격추당했다. 이후 이스라엘군은 요르단에 대하여 51소트의 비행을 실시하여 20대의 호커-헌터 전투기와 수송기 6대 등을 파괴하면서 요르단 공군을 괴멸시켰다.

한편, 3파는 시리아 공군에 대해 약 82소트를 실시하여 시리아 공군전력을 괴멸시켰다. 시리아 공군은 11시경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공중전에서 많은 전투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공군기지를 기습당하여 주기기쳐났던 수많은 전투기들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공군은 MiG-21 32대, MiG-15/17 전투기 23대, 일류신 IL-28 폭격기 2대 등을 파괴했는데, 이는 시리아 공군력의 2/3에 해당 하는 것이었다.

2일차, 더 이상 적기가 없다

한편 6월 6일이 되자 이라크의 기습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라크의 Tu-16 한 대가 새벽에 기습적인 공습을 감행하여 이스라엘의 네타니아 항공기지를 폭격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기체는 이후 텔아비브로 향하다가 곧 대공포화에 격추되고 말았다. 이는 유일하게 아랍 측이 성공시킨 공습이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네타니아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공습을 결정하고, 미라주 편대와 미스텔 4개 편대를 발진시켰다. 이 중 미스텔 4개 편대는 요르단 국경 인근의 H-3 항공기지에서 10여 대의 이라크 기체를 파괴하면서 공습에 성공했다.

한편 결정타를 가하기 위해 미라주 2개 편대는 저공비행으로 이라크 내륙으로 침투해나갔다. 하지만 이들은 이라크 공군 호커헌터 전투기에게 후방을 노출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5분간의 공중전에서 이스라엘의 미라주는 회피기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3대나 격추당 하면서 후퇴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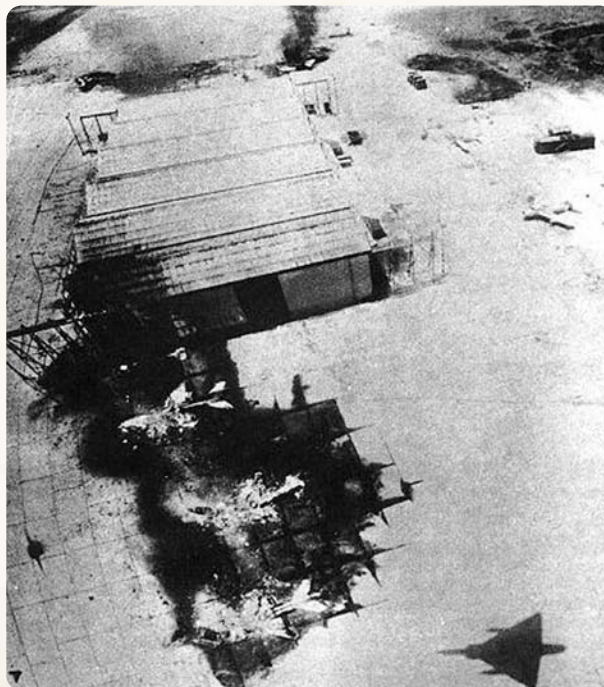
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공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공군에게 패배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MiG-21 12대, MiG-17 2대, 헌터 F-6 5대, IL-28 폭격기 3대가 파괴됐다. 이에 이라크 공군은 추가전력이 보강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모케드 작전의 성과

6일 전쟁을 통틀어 이스라엘은 적 항공력의 70%를 파괴하는 반면, 자신의 항공전력은 10% 정도의 손실을 입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전적은 모케드 작전을 개시한 지 6시간 만에 기록되었다. 아랍 측 공군력을 조기에 괴멸시킨 이스라엘군은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4일 만에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으며, 요르단강 서안(西岸)지역, 시리아 국경의 골란고원을 공략했다. 국제 연합 안전보장 이사회는 6월 6일 즉시 정전을 결의했고, 쌍방의 수락에 의해 6월 9일 정전이 이루어졌다.

6일 전쟁의 항공전에서 이스라엘은 최초의 60시간 동안에 아랍권 항공기를 모두 451대 격파했으며, 이 가운데 공중전으로 58대를 격추시켰다. 이스라엘 측은 모두 45대를 잃었으며 이 중 공중전 손실은 10대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공군은 공중전에서 기관포만으로 격추를 기록하여 우수한 도그파이트 능력을 자랑했다. 특히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미라주 III 전투기를 기동하여, 가속성과 선회성이 더욱 우수한 MiG-21 전투기를 제압했다. 또한 저속의 슈페르 미스테르가 MiG-21을 격추하기도 했고, 우라강 전폭기가 MiG-17을 격추시킨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훈련을 반복한 이스라엘 공군은 열세의 기체를 가지고도 기체의 성능한계를 끌어내어, 우세한 기체를 가지고도 성능을 끌어내지 못한 아랍조종사들을 제압했다.

수년에 걸친 섬세하고도 독창적인 작전계획과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엄청난 훈련이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을 승리로 이끈 셈이다. **AF**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이집트 공군기지에 대해서는 미라주 III 편대가 공습을 담당했다.



스마트 시대 우리의 선택

이번 달에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사는 CEO로서 요즘 내가 느끼는 바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노하우를 나누고자 한다. 나는 그야말로 스마트 시대에 뒤지지 않는 CEO가 되기 위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노트북 등 스마트 세대의 필수품과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사용해왔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런 조류에 발맞춰 가면서도 휘둘리지 않는 원칙(Principle)과 기술(Technique)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차에 만나 생각을 정리하고 통찰을 얻는 데 큰 영향을 주었던 탁월한 생산성을 위한 다섯 가지 선택(The 5 Choices to Extraordinary Productivity)의 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중요한 것만 하라(Act On The Important).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4가지 사분면으로 나눈 시간관리 매트릭스에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분별력을 통해 덜 중요한 것로부터 중요한 것을 고르고, 삶의 구석구석 2사분면의 문화에 집중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2사분면에는 주도적인 일, 영향력이 큰 목표들, 창의적인 생각, 계획, 예방, 관계 구축, 배움과 갱신 등이 있는데, 덜 중요한 것들에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둘째, 탁월함을 목표로 하라(Go For Extraordinary). 사람마다 무언가 다르기를 원하지만, 종종 우선 순위 경쟁은 탁월한 결과를 성취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보통의 결과를 위해서는 아무 에너지도 사용하지 말고, 우선 순위가 높은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의 해보면서 2사분면 역할을 작성해보자. 먼저 ‘현재 상태’라고 적고 ‘역할 이름’을 적은 다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적고 원하는 ‘탁월한 결과’들을 적는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통해’라고 적고 해야 할 ‘활동들’을 기입하면 완성된다.

셋째, 인생의 큰 돌들을 먼저 스케줄에 넣으라(Schedule The Big Rocks). 더 이상 덜 소중한 자갈 같은 시간들 때문에 제일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간 단위와 일간 단위의 2사분면 계획이 필요하다. 먼저 ‘주간 2사분면 계획(Weekly Q2 Planning)’의 경우 스스로의 역할과 계획들을 연결하고, 큰 돌들을 스케줄링 한 뒤 나머지 시간을 조직하며, 이 모든 작업에 적어도 30분은 투자한다. ‘일간 2사분면 계획(Daily Q2

Planning)’의 경우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1~2가지의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정 의한 뒤 나머지 시간들을 넣는데 10분 정도면 된다.

넷째, 기술의 지배자가 되라(Rule Your Technology). 예컨대 이메일 수 신처럼 정보가 흘러 들어오면, 3가지 핵심 행동을 하면 된다. 먼저는 규칙과 여과 장치를 통해 중요하지 않거나 스팸성 이메일들은 싸우지 않고 방어한다. 그리고 이메일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다. 특히 약속, 해야 할 업무, 계약, 사용할 수 있는 노트 등 핵심 4분류를 만든다. 그런 뒤 이메일과 첨부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분류된 곳에 넣어 보관한다.

다섯째, 열정의 에너지를 지속시켜라(Fuel Your Fire). 조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높은 환경 속에서 지쳐 녹초가 될 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5가지 에너지 드라이버를 언제나 작동시켜야 한다. 움직이고 먹고 자고 쉬고 연결하는 것이다.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행동들을 정리해보았다. 바쁠수록 위의 5가지 선택을 마음속에 그리며 생활하시길 바란다. **AF**

		긴급함	긴급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I	◆ 위기 ◆ 급박한 문제 ◆ 마감에 쫓기는 프로젝트, 미팅, 준비	◆ 계획수립, 예방 ◆ PC 활동 ◆ 새로운 기회 인식 ◆ 관계 구축 ◆ 쇄신, 레크리에이션 Habits 1-8
	III	◆ 불필요하게 끼어드는 업무 ◆ 불필요한 보고서 ◆ 중요하지 않은 미팅, 전화, 메일 ◆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문제	◆ 사소하지만 바쁜 일 ◆ 일부 전화통화 ◆ 시간 낭비 요소 ◆ “도피” 활동 ◆ 관련 없는 메일 ◆ 과도한 TV 시청
		긴급하지 않음	중요함
중요함	II		
	IV		

공군 IN

기획특집 겨울철, 건강한 피부관리를 위해!
공군장병들의 방한비법 대공개!!
공군인들의 연애를 위한 두 가지 조언!!
공군장병들의 따뜻한 이웃사랑 이야기

Photo Sketch 사진으로 보는 '2011 공군 10대 뉴스!'

포토프레임@AF 주요지휘관 이·취임식 주관 外

AIR FORCE MONTHLY 2011. 12. NEWS

생각하는 그림 친구야 힘내! 우리가 있잖아!

겨울에 ^더따뜻한 공군!

월간 「공군」의 이번 호 주제는 '따뜻한 공군'입니다. 광활한 활주로나 고산지대의 관제부대, 방공포대에서 칼바람을 견디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군 장병들이 겨울과 연말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에 준비한 기획입니다. 20대 장병들의 큰 관심거리인 '피부관리'에 대한 이야기, 장병들이 직접 제안한 '방한비법' 이야기,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줄 '연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슴을 포근하게 해 줄 '이웃사랑'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첫 번째 이야기

겨울철, 건강한 겨울관리를 위해!



연초 <Health Diary>의 시작을 알리며 1월호의 원고를 썼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신묘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그간 월간 「공군」을 통해 유익한 건강정보를 전해드리고자 노력했는데, 공군장병 식구들께서는 올 한해 건강 챙기기에 얼마나 힘쓰셨는지 궁금하네요. 남은 12월 한 달도 <Health Diary>가 공군장병 식구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마스크에서는 한파 예보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올해 겨울도 유독 추울 것이라고 하는데요. 매서운 한파가 닥쳐도 국토방위에 있어서만큼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되듯이, 공군장병 식구들 역시 겨울철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달 <Health Diary>는 겨울철을 맞아, 우리 신체에 겨울이 왔음을 가장 먼저 느끼게 하는 '피부'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겨울 피부

피부는 겨울이 괴롭습니다. 바람과 추위, 건조함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이 바뀌면서 피부도 서둘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때 적응하지 못하면, 피부트러블이 일어나기 쉽죠. 겨울철 우리를 괴롭히는 3대 피부질환을 손꼽으려면, 자율신경의 과민반응으로 홍당무 얼굴이 되는 '안면홍조', '아토피 피부염' 악화, '피부건조증'을 들 수 있습니다. 이 3대 질환 중에서 '피부건조증'은 겨울철 낮은 기온과 습도로 누구에게나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겨울피부건조증

겨울철이 되면 공기 중 수분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인체 최전방의 각질층 수분도 줄어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수록 피부 내 지방분이 줄어들어 쉽게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외양이 거칠어지고 비늘



처럼 각질이 일어납니다. 심하면 가려움증도 생기죠. 이 같은 증상을 '건성진'이라 합니다. '건성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온도와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건조증 관리 및 예방

보습제를 쓰십시오. 겨울철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습제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발라야 합니다. 겨울철 피부건조증으로 인해 가렵다면 얼음을 비닐로 싸 가려운 곳에 대거나, 5분 정도 목욕을 하고 그 후에 보습제를 발라주십시오. 그래도 가려움이 참기 힘들다면 가까운 의무대 및 군병원을 방문해 항히스타민제 내지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피부건조증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점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따뜻 목욕'을 삼가라는 겁니다. 피로회복차원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사우나를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매일 목욕을 하면 피부의 피지막(기름막)이 제거돼 피부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목욕은 1주일에 2회 정도 적당히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걸로 충분하며, 목욕시간도 총 30분을 넘기지 않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목욕할 때 타월로 피부를 강하게 문지르거나, 비누칠을 과도하게 할 시 각질층의 지방이 제거돼 피부건조가 더욱 심해집니다.

동 상

추운 겨울 실내 활동 시 피부건조증을 주의해야 한다면, 혹한기 동계훈련 등의 야외 활동 시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동상은 영하의 온도에 몸의 조직이 얼어붙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특히 경계근무에 임하는 헌병처럼 수시간 동안 저온에 노출되면 뜻하지 않게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동상은 주로 귀·손·발 등 노출된 신체 부위에서 흔히 발생하며 대개 경미한 수준의 손상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동상이 심해질 경우, 손발의 일부 또는 다리를 절단해야 될 때도 있으므로 적절한 방한대책이 요구됩니다. 동상부위는 처음에는 창백하며 잘 느끼지 못하다가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면 통증과 함께 화상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알게 얼었을 때는 수시간 내에 신체기능에 의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언 정도가 심하면 피부 조직이 과사돼 회복불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동상 관리 및 예방

혹한기에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한복, 장갑, 양말, 신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젖은 의복이나 신발, 그리고 너무 꽉 끼는 의복은 피해야 하며, 장거리 보행 시 땀에 젖은 양말은 자주 갈아 신으십시오. 동상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걸렸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상의 응급처방은 언 부위를 빨리 덥혀주는 것입니다. 섭씨 40도 이상의 더운 물에 동상부위를 담가 피부가 말랑말랑해지고 홍조가 돌 때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를 올리겠다는 생각에서 과도하게 동상부

위를 문지르지 말아야 하며, 물집이 생겼을 때는 억지로 터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상처부위에 세균감염을 유발해 동상을 악화시키거나 다른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올 겨울에는

일년 중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을 꼽는다면 '겨울철'일 겁니다. 겨울철에는 체내환경과 외부환경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외부환경의 변화에 주의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가족과 같이 '서로' 챙겨주십시오. 동료들을 위해 건조한 생활관 내 가습기를 틀거나, 잠자는 후배를 위해 방에 젖은 빨래를 너는 것 등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 전 동료들 간 서로 의복을 챙겨준다면, 아마 올 겨울 공군장병들은 모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지 않을까요? **AF**

두 번째 이야기

겨울에  따뜻한 공군!

공군장병들의 방한비법(防寒秘法) 대공개!!



입을 열면 춥다는 말이 비명처럼 터져 나올 정도의 계절, 겨울. 라니냐 현상으로 올 겨울은 더 춥다는 예보도 있는데요. 감기, 피부질환, 동상 등 겨울철 질환도 문제지만, 추위로 잔뜩 움추려든 어깨는 전투력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인터넷 공감을 통해 특별한 앙케트를 실시했습니다. 바로 올겨울을 따스하게 보낼 수 있는 방한비법을 공모하는 것이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250개가 넘는 온갖 노하우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편집실에서는 이 중 재미있고 특별한 방한비법 열다섯 가지를 선정해 독자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전(秘傳)으로 전해온 공군장병들의 방한 노하우들을 「공군」지를 통해 전격 공개합니다.

1. '뽕뽕 싸매기' 파



■ **남재욱** 추위 강도에 따라 **1단계** = 오직 전투복, **2단계** = 전투복+야상, **3단계** = 전투복+야상+장갑+귀마개, **4단계** = 전투복+야상+장갑+귀마개+야상내피, **5단계** = 전투복+야상+장갑+귀마개+야상내피+내복. 내복이야 말로 최종병기입니다. 동절기 파이팅입니다!

■ **김수일** 추위하면 저희 황병산입니다! 뭐 많이는 안 춥고, 한 영하 28도에 체감온도 영하 40도가 조금 넘어갑니다. 제가 기상특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따뜻해지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사람은 열을 발산하는 동물이라 그 열이 몸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면 되는데요. 내복과 야상, 그리고 장갑, 귀마개 같은 건 필수이고 맨살이 드러나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목은 목토시, 얼굴은 마스크, 밤에 라디에이터 위에다가 양말을 얹어 두었다가 아침에 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양말을 또 덧신으면 아주 따뜻합니다.

2. '근무 노하우' 파



■ **김천중** 저는 활주로에서 일하는 무장특기이기 때문에 항상 손쓸 일이 많습니다. 겨울에 춥다고 가죽장갑에 목장갑을 마구 끼면 물론 손이 따뜻하겠지만 손끝 감각이 떨어져 능률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사회에서 파는 짝 붙는 3M장갑 같은 고무소재 비슷한 장갑을 끼고, 거기에도 목장갑을 끼고 일하면 따뜻하고 일하는데도 지장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 **장민욱** 항공기 정비사들의 이색적인 방법입니다. 항공기 점검할 때 가스터빈 제너레이터라는 장비가 쓰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무거워 끌고 다니기 벅찬데 겨울에는 이만한 난로가 따로 없기에 겨울엔 이 장비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더운 열 때문에 옆에 서 있지만 해도 순식간에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호스에 손을 대고 있으면 꽁꽁 얼었던 손도 금방 녹습니다.

3. '사랑의 온기' 파!



■ **하현수** 최북단 섬에서 얼어붙은 배관을 뚫으러 다니는 시설반 병사입니다. 섬의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배관을 따라 가파른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추위가 가시지 않아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 수고했다는 간부님의 한마디 말과 함께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온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 **문동만** 여자 친구! 아무리 따뜻한 환경이라도 여자 친구 없으면 추움...

■ **채미름** 겨울에는 뭐니 뭐니 해도 수면양말! 수면양말과 깔깔이가 있으면 됩니다. 거기다가 훈훈한 선·후임들과의 차 한 잔... 만약 친한 사람이 없다면 내무실에서 주전자에 끓인 물을 가져와서 전우들에게 차를 나눠주면서 훈훈한 겨울을... 작년에 제가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주전자의 수증기와 선·후임 간의 따뜻한 대화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 **임현준** 선·후임 간, 간부님들 간의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행복감과 기쁨을 줄 수 있는지를 말해드리고 싶네요.

■ **이용현** 어머니의 "고생하네, 우리아들"이라는 따뜻한 한마디면 고산지대 칼바람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한마디가 제일 따뜻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 **현호성** 추억으로만, 가슴 속에만 간직하기에는 아까운 따끈따끈한 사랑이야기야말로 최고의 난방기가 아닐까 합니다. 후임과 함께 서는 근무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야기... 몸의 온도인 36.5℃를 유지하다 못해 2℃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선·후임 간의 정도 따뜻따뜻, 사랑이야기도 따뜻따뜻. 군대에서의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이 아닐까 합니다.

4. '요건 몰랐지' 파



◆³ **양진우** 이건 춥고 배고팠던 생도 때 쓰던 방법인데 1.5리터 음료수통(다른 건 뜨거운 물에 찌그러짐)에 뜨거운 물 붓고 모 양말(착용하지 않았던 것) 안에 쑥~ 넣어서 끌어안고 자면 한 겨울에도 따스합니다.

✓¹ **조창근** 굴껍질을 모아 램프로 싸맨 후 전자레인지에 45초간 데운 후 꺼내면 일회용 손난로가 됩니다. 지속시간은 3시간 정도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굴껍질을 구하기 힘든 분들은 주변에서 맨들맨들한 돌덩이 하나 구하셔서 그것을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삶으면 이 또한 손난로가 됩니다. 단점은 지속시간이 20분 정도라는 것, 장점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삶는 시간이 길수록 지속시간도 조금 길어진다고 하네요.

5. '헐...' 파

■ **김현식** '춥냐? 땀나게 해줄까?' 라고 훈련병 시절에 분대장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 **김상민** MOPP 4단계를 적용하면 올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 **김현우** 주말에 간부님의 이 한마디면 춥던 곳도 따뜻해집니다... 작.업.가.자! (π π π) **AF**

세 번째 이야기

겨울에  따뜻한 공군!



공군인들의 연애를 위한 두 가지 조언!!

그날은 비가 왔어요.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내 남자친구를 조금이라도 빨리 보기 위해 한들한들... 우산을 쓰고 부대가까이로 걸어가 봅니다.

민간인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선까지 걸어가니, 먼저 와서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또래의 여자가 있었어요.

눈이라도 마주치면 더 어색할세라, 애써 서로를 모른 척 부대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남자친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보던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그쪽 남자친구는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뭔가 좀 쑥스러운 기분으로 서로의 남자친구 계급을 이야기하고, 한쪽의 계급이 더 높으면...

혹시 남자친구의 선임병의 여자친구이면 어쩌나 괜한 주눅이 들어,

또 절반쯤은 부러움에, “아.. 그러시구나... 얼마 안 남아서 죽으시겠어요...”

그러면 또, “생각보다 시간 금방 가요...^^”라는 대답도 해주지요.

그렇게 짧게 한마디 나누고... 고개를 빼고 남자친구 나오는 곳을 바라보다 또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어디서 오셨어요...?”

“부대까지는 뭐 타고 오세요?” 이야기를 또 몇마디 나누며 지루함을 달래봅니다.

그러다 누군가의 남자친구가 먼저 손을 흔들며 뛰어나오면,

“전... 남자친구가 나와서... 먼저 가 볼게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하고는 몰려 뛴은 머리를 찰찰거리며, 한 손에는 우산을 팽팡거리면서, 남자 친구에게로 달려가 팽팡을 직니다.

‘내 남자친구도 곧 나올 텐데... 뭐...’

그 모습을 혼자 바라보는 그 잠시가 어찌나 쓸쓸하던지...

눈물이 핑...



하지만 남자친구를 향한 이렇게 애타했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겪게 되지요. 누군가의 연애는 더욱 단단해지고, 누군가의 연애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오늘은 흔들리는 장병들에게는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외로운 장병들에게는 연애의 시작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모아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랑하고 있는 또는 사랑하고 싶은 모든 장병들에게 다시 한 번 기억시켜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연애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이 나라는 군인이 민간인을 지켜주지만, 연애에서는 군인이 민간인을 지켜주는 것이 어렵다는 것.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지요.

Q. 무엇이 당신의 사랑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또래의 아가씨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녀들은 남자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숨이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군인이니까 넌 힘든 날 위로해줘야 해.

나는 군인이니까 난 어떤 데이트코스가 좋은지 알 수가 없어. 네가 알아서해줘.

나는 군인이니까 어렵게 휴가 나온 것이니 네 스케줄은 무조건 내게 맞춰줘.

나는 군인이니까 전화하면 잘 받아줘. 내가 힘들어서 짜증내도 이해해.

나는 군인이니까... 나는 군인이니까...”



“군대에 갈 것은 알고 만났어요. 지금 군인인 것도 아주 잘 알고 있구요.
저에게는 “날 사랑하는 남자”,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어디에 있는 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자주 볼 수 없는 것도, 연락이 자유롭지 못한 것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군인이라는 상황 뒤에 숨어버린 남자에게는 더 이상 가슴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널 위로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요즘 인기 많은 데이트코스도 내가 짜놓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너의 휴가에 맞춰 내 일정을 몽땅 비워둘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너의 전화가 기다려지는데... 짜증도 받아주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그런데 너는, 나에게 남자인길 바라는 거니... 군인이길 바라는 거니.”

“군인인 것이 약점이라며 자신 없어 하더니, 어느새 신분을 활용해 어리광을 부리는 것. 그건 좀 비겁하잖아요, 받아주기엔 저도 너무 지쳐가요. 편지 쓰는 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먼 곳까지 면회 가는 게 힘든 것도 아 니랍니다. 진짜 힘든 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견뎌야 하는 것이라구요.”

“당당하고 자신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남자. 그런 내 남자친구를 자유롭게 만날 날을 기다리는 일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도 흔들림에 괴롭지는 않을거라구요. 군대라는 상황은 그에게도 저에게도 낯설고 제약이 많 긴 하지만, 힘든 상황, 달라진 상황을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진짜 어른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나는 계속 이 멋진 남자와 함께하고 싶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인의 신분은 분명히 국가적으로 소중한 자원이지만, 그것을 내세워 연애에 활용하는 것은 연 애의 종말을 재촉할 거란 얘기였답니다...

하. 지. 만. 그녀의 생활패턴에 지장을 줄까봐 전화하고 싶은 마음도 꼭 참았고, 근무에 지쳐 힘들어도 그녀가 걱정할까봐 목소리까지 신경썼는데. 잔뜩 기대하고 나간 휴가도 그녀의 스케줄을 존중해주느라 마음껏 만나 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았고, 편지나 연락이 뜸해도 이해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날아든 이별의 소식. 진짜 난 한다고 했는데. 후...

원래 연애라는 게 그래요.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얘기한대로 당당한 남자친구 모습 잃지 않고, 여자친구를 아끼고 배려해줬어도 이별통보는 날아 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니 너무 분노하지 말아요. 스무 살의 여인은 본인도 자기 마음을 모르거든요. 이것도 원래 그런 거거든요. 본인도 모르는 마음을 남자친구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속상해 하지 말아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데 비해 남는 게 없는 일이거든요.

저에게 가장 많이 해 오시는 상담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지만, 저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알아서 뭐하시게요?”**

아는 것, 짐작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뿐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점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그것을 알았다 해도, 마음을 아는 것과 그것을 움직이는 일은 매우 별개의 일이라구요.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어오신다면, 저는 **“아니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아도 별 수 없거든요. 그에 비해, 들이는 수고는 엄청나죠.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러나, 그간의 말, 행동을 곱씹어 고민도 해야 되고, 연락이 자유롭지도 못한 상황에서 여자친구 주위의 분위기 감잡아보겠다고 열심히 추적도 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 하나라도 생각나면 벽에 머리 찧어가며 자책도 해보다가, 상담이니, 조언이니 구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괴롭히고... 그러면서 군 생활은 엉망이 되고,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되고,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건 원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언제부터 스무 살 여자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알 수 있었던 건가요. 이별을 통보 받았다면, 그리고 난 그 이별에 수긍할 수 없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훗날을 도모하라.”

여자는 멋있는 남자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녀의 마음을 궁금해 할 필요 없습니다. 되돌리려는 노력, 군대 안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것이 없을 텐데요. “불잡을 줄 알았는데 쿨하게 돌아서는 남자”에게 아쉬움을 느껴주길 기대하며, 미련 없이 물러나는 정도가 군인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일 거예요.

자, 제대하고 그녀와 다시 뭐라도 해보고 싶다면, 부디 아련하고 애뜻하게 남으시길 권합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매달리거나, 그녀가 원치 않을 행동을 하는 것은 금물. 이별 통보받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장 상황을 역전시켜보겠다고 쓸는 헛수고를 얼른 멈추고, 제대 후에 사용할 비장의 무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너무 약하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약은 여자들이야말로 절대로 “더 좋은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더 멋있는 남자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그녀들의 본능입니다.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긋지긋해. 질렸어.”란 말을 떠올리지 않도록, 마무리에도 신경을 써야 해요! 그녀 앞에서 새 무기를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인간관계까지 끝장을 보는 실수는 no! no! 지나고 생각해보면, 이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헤어짐에서 한발 물러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즐기세요.

‘나는 무엇을 잘 하는 남자일까?’

‘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이지?’

‘요령껏 뉘고 갈 단점은?’

‘나에게 진짜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녀의 마음을 점치는 일 따위 당장 중단하고, 제대하자마자 써먹을 자신만의 무기에 대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여자한테 못써도, 다른 여자한테 쓰면 되니까 그 걱정도 마세요. ^^)

또 하나. 군인도 새로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아니, 어쩌면 그야말로 사랑에 빠지기 쉬운 취약계층!! 그리고 실제로 능력 총만한 장병들은 새로운 여자 친구를 잘도 사귀입니다.

휴가 나가 잠깐 들러본 동아리. 못 보던 여자 새내기. 처음엔 나를 살짝 경계하는 듯, 어려워하는 듯도 하더니, 며칠 만에 불임성 좋게 상냥하게 웃으며 “오빠! 오빠!” 날 따르는데, 난 복귀가 내일 모레. 하... 고민에 빠지지요.

흔히 하게 되는 두 가지 고민.

1. 난 그녀에게 잘해줄 상황이 안 되는데, 고백해야 할 것인가.
2. 고백하면 그녀가 받아줄 것 같은가.

자격지심 가진 남자만큼 매력 떨어지는 남자는 없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아. 물론 여자 친구도 생기지 않아요 :D

“난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다!”란 자신감을 스스로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매력 포인트! 자신감의 근거를 채워나가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요. 자신감 있는 척과 실제 자신감을 갖는 일은 매우 다른 일이니깐요. 앞서도 말했지만, 영리한 여자들이라면, 훌륭한 남자가 “군대”에 있다고 그 사람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요. ‘군대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더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똑똑한 남자라고요!

연애에 있어, 군대에 있다는 것은 특권도 아니지만, 장애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귀자고 했을 때 저 여자도 OK할 것 같으면 고백을 하고, 거절이 나올 것 같으면 고백하지 말아야지!”라는 목적을 위해 그녀의 마음이 궁금한 경우, 당신은 그녀에게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가며 군대에서의 연애를 지속할 수 있을 만큼의 애정은 없는 것”이 맞을 거예요. 편지 써주고 전화받아줄, 휴가 가면 시간을 보낼 친구가 필요한 정도겠조? 그 정도의 호감이라면 마음이 평화로운 군 생활을 위해 시작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정말 힘 있는 호감이라면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부끄러울 이유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고백은 어떻게 하는 걸까?

성공하는 고백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때, 가장 솔직하고 담담한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원하는 대답을 들어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을 편안히 전달하겠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최선. 물론! 거절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절당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이번엔 거절했다고 다음에도 거절하리란 법도 없구요 :D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많거든요. 심호흡 한 번하고, 요령 없이 단순하게.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다보면 연애고민은 답은 쉽게 나올 거예요.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1. 연애는 남자랑 여자랑 하는 것.
2. 상대를 파악하는데 애쓰기보다 나에 대해 먼저 고민해 볼 것!!

이상, 이 세상 모든 망한 연애이야기를 다루는 “감자의 친구들은 연애를 하지”(www.holicatyou.com)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홀리갯슈였습니다! AF



네 번째 이야기

겨울에  따뜻한 공군!

공군장병들의 따뜻한 이웃사랑 이야기

피터 드러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21세기 인류사회에 있어 최고의 행위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의 하나가 될 것이다.” 흔히들 봉사활동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성장의 하나’라고 합니다. 봉사활동의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우리 공군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찬바람 부는 계절에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은 털목도리만큼이나 우리의 체온을 올려줍니다. 공군장병들의 나눔 이야기를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 소개합니다.

배우고 익혀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과 ‘이웃’에!

공군사관학교 생도전대, 보급대

11월 1일, 청주시 사직 1동 근처. 체련복을 입은 공군사관생도 150여 명이 임명운 할아버지(93세) 등 무의탁 노인분들의 댁에 연탄을 넣어드리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한참 외모에 신경을 쓸 20대 초반의 얼굴에 찬바람과 연탄가루가 줄줄리 없건만 생도들의 얼굴엔 기쁨이 배어 있다. 공사생도들이 충북연탄은행과 손잡고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새 3년이 넘었다. “봉사활동 하는 선배들의 모습이 좋아보여서 동참하게 됐어요.”라는 3학년 남용운 생도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봉사는 생도대에서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 가고 있다. 학교본부에서도 전인교육 차원에서 생도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무거운 연탄을 나르는 생각보다 사랑을 전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이야말로 장교가 될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라고 4학년 구상협 생도는 이야기한다. 공군사관학교 생도전대의 따뜻한 봉사활동은 지난 9월 29일, 청주시의장 표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웃사랑에는 공군사관학교 보급대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보급대대 장병들은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청주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 ‘은혜의 집’을 찾아 원생들의 목욕을 도와주고 텃밭도 가꿔준다. 까르륵 웃으며 이야기꽃도 피운다. 손혁재 병장은 “처음엔 호기심 반 긴장감 반으로 왔는데, 조금의 관심과 조금의 시간으로 여기 분들에게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보람칩니다.”라고 말한다.



[illegible]

농공 무역회館

이제부터 **이름**을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illegible][illegible]

42부근차 구조적 유사

사유·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illegible]
$$\frac{1}{\sqrt{2}}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frac{1}{\sqrt{2}}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frac{1}{\sqrt{2}}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frac{1}{\sqrt{2}} \begin{pmatrix} 1 & 0 \\ 0 & 1 \end{pmatrix}$$

17년 이아 이득이 - 17년 이아 이득이



연탄에 담아 전하는 마음

제17전투비행단 한동성 원사

제17전투비행단 한동성 원사. 그는 2008년 초 청주시 외평동 및 오근장동 일대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가정에 연탄 나르기 봉사를 처음 시작한 이후 이웃사랑 실천에 폭 빠졌다. 해마다 겨울이 찾아오면 틈나는 대로 목장갑과 목도리를 하고 연탄을 나른다. 단 주임원사가 된 이후로는 부대 병사들과 함께 비행단 인근 음성꽃동네, 은혜의 집, 성심노인요양원 등을 찾아 목욕봉사, 이발봉사 등을 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300여 명의 병사들과 20여 차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어색해 하던 병사들도 한 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며 행복한 웃음을 보여주자 씩씩하게 팔을 걷고 노인들과 장애우들에게 다가간다고 한다.

불은 연탄가루로 까매지고, 코끝은 찬바람에 빨개져도 어르신 댁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연탄들을 보면 저절로 힘이 난다는 한 원사의 소박한 바람은 이렇다. “우리 부대에 오는 병사들도 저처럼 이웃사랑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컴퓨터 배우세요~

제18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강릉시 소재의 한 마을회관. 1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컴퓨터 앞에 앉아 어색한 동작으로 마우스를 움직인다. 강사 선생님은 다름 아닌 인근 비행단의 공군 병사들.

“할머니,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누르셔야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자꾸 까먹어~ 놓라도 애가 가만 있잖아~”

“네, 한번 누르면 안 움직이고 빠르게 두 번을 누르셔야 해요. 그걸 더블클릭이라고 부러요.”



이날 노인 학생들 옆에서 친절하게 인터넷 활용을 가르쳐주는 군인들은 제18전투비행단의 정보통신대대 병사들이다. 이 대대는 매년 휴농기(보통 12월부터 2월)가 되면 이 마을회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과정을 연다. 2008년 시작된 이 자원봉사는 주로 인터넷 검색, 문서 작성, 전자우편(E-mail) 사용법 등을 알기 쉽게 가르쳐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년째 교육에 참가하고 있다는 최중문 할아버지(78세)는 “서울 사는 손자놈하고 메일 주고받을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고맙냐.”면서, 친절한 군인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실했다. 유환 상병(23세)도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얻는 것이 많다고 한다. “내가 알고 있는 컴퓨터 지식을 대단하다고 여긴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큰 도움을 드리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공군에서 받은 사랑,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공군 예비역들의 따뜻한 나눔도 이어져...



프로골퍼 이동환 선수

공군 순직 조종사 유자녀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공군에서 복무했던 예비역들의 훈훈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스타트를 끊은 건 프로골퍼 이동환 선수. 올해 9월 열린 일본 프로골프투어(JGTO) 도산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는 등 해외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동환 선수는 우승상금 중 일부인 2,000만원을 지난 11월 2일,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탁했다.

2008년 12월, 공군에 입대해 제3훈련비행단에서 복무한 이동환 선수는 “군 생활을 통해 키운 인내와 절제력,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 골프 경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조종사들의 유자녀들을 조금이나마 돕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골프실력만큼이나 마음씨 역시 ‘굿~샷!’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이동환 선수에 이어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도 11월 22일, 강의료와 인세 등을 모은 2,000만원을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쾌척했다. 윤 원장은 “공군장교 생활은 석·박사 과정 이상으로 배움과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며, “순직 조종사 유자녀들의 학업에 약간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1975년 공군소위로 입관한 윤 원장은 5전비 단장 전속부관, 공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전속부관 등을 거쳐 1979년 중위로 전역할 때까지 만 4년 5개월 동안 공군 제복을 입었다. 전역 당일에도 맡고 있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혼자서 전역신고를 한 일하는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전역 후에도 윤 원장의 각별한 공군사랑은 유명하다. 공군에서 특강 강사로 초빙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달려갔고, 1996년부터는 공군대학 명예교수로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AF**

Adieu~ 2011

Adieu~ 2011!

사진으로 보는 '2011 공군 10대 뉴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신묘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월간 「공군」 편집실에서는 2011년 공군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2011 공군 10대 뉴스!' 올 한 해 공군에서는 어떤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는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되새겨 볼까 합니다. 뉴스 선정은 공군본부 공보과에서 수고해주셨습니다.

#1

한반도 영공 감시의 눈을 뜨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평화의 눈(Peace-Eye)

2011년 9월 21일, '하늘의 전투지휘소'라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Peace Eye, E-737) 1호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인수됐습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항공기에 공중감시레이더를 장착하여 공중에서 조기경보, 항공기 통제, 전장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중지휘통제체계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방공통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영공에서 공중급유훈련 전투기 작전반경을 확대하고 임무체공시간을 늘려

2011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군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영공에서 공중급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해 상공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15K 조종사 8명과 F-16 조종사 8명이 참가해 주·야간 공중급유훈련을 실시하고 공중급유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훈련을 위해 미 공군의 공중급유기와 교관조종사들이 큰 도움을 주었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로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3

더욱 강해진 파이팅 펄콘!

KF-16에 JDAM 장착

2011년 1월, 우리 공군은 KF-16 전 전투기에 GPS 정밀유도폭탄인 JDAM(GBU-31, Joint Direct Attack Munition)을 장착하고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JDAM은 기존의 재래식 폭탄에 유도장치와 날개 키트를 장착해 스마트 무기로 변형시킨 정밀유도폭탄으로, GPS(위성항법장치)와 INS(관성항법장치) 유도방식을 통해 주·야간 전천후 정밀폭격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목표물까지 조준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JDAM은 갱도 안 장사정포 등 다수의 주요 전략표적 목표를 동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국산 초음속 항공기로 화려하게 부활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T-50B 전력화 행사

2011년 4월 1일 공군 원주 기지. 역대 블랙이글스 조종사 35명, 방위사업청과 KAI 관계자, 블랙이글스 동호회원 등이 모인 가운데 '블랙이글스 T-50B 전력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2007년 10월 서울 에어쇼에서 당시 운영기종이던 A-37의 고별비행을 끝으로 잠정 해체된 이후, 국산초음속 훈련기 T-50으로 기종을 전환하여 1전투비행단에 서 비행훈련을 해오다가 블랙이글스 전용 T-50B 항공기를 도입해 화려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5

TA-50 1호기 도입, 전력화 박차

선진비행교육체계 완성할 전투입문훈련기

KF-16에 필적하는 전투기동 성능과 공대공/공대지 무장운용능력을 보유한 TA-50 전투입문훈련기가 지난 1월, 공군에 도입됐습니다. TA-50 20대가 2012년 5월 전력화되면 공군의 선진비행교육체계가 최종 완성되게 됩니다.

TA-50 전투입문훈련기는 최신 항공전자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과 미 F-18 항공기에 장착되는 F404-GE-102 엔진, 높은 구조하중 기준(8G)을 적용한 견고한 기체구조와 함재기에 착륙할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하여 최신 전투기 운용환경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훈련기입니다.



Seoul ADEX 2011

최신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의 각축장

전 세계 최첨단 항공기 및 방위산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1(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1)'이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공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31개국 314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25만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행사의 일환으로 세계공군참모총장회의,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 등이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ADEX의 백미는 단연 우리 공군의 박진감 넘치는 축하비행과 화려한 에어쇼였죠. 119대 1의 경쟁을 뚫고 제3기 국민조종사로 선발된 박지선씨, 김윤주씨, 박정득씨, 정지은씨의 비행체험과 임명식도 많은 화제를 낳았고, 공군 홍보관과 항공전투시물레이션대회도 성황리에 운영됐습니다.



영화 '비상飛上 : 태양 가까이' 제작 지원

공군 조종사들의 목숨을 건 작전과 삶,
사랑이 담긴 공중 액션 블록버스터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 액션 블록버스터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비상飛上 : 태양 가까이'가 대한민국 공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투사부일체>, <유감스러운 도시> 등을 연출한 김동원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정지훈, 신세경, 유준상, 김성수, 이하나 등 최고의 배우들이 열연하는 이 영화는 2012년 전반기 중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공과학고등학교, 첫 여성 부사관 배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마이스터고 지정

2011년 2월 24일 열린 제40기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의 첫 여군 부사관 13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금녀(禁女)의 공간이었던 항공과학고등학교가 처음으로 여학생을 모집한 것은 2008년. 당시 15명 정원에 766명이 지원해, 51: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죠. 그 첫 결실이 이 날 13명의 여군 부사관 탄생으로 맺어진 셈입니다. 한편 항공과학고등학교는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9

공군 근무모, 개리슨모로 바뀐다!

전투복, 약정복도 새롭게, 스웨터도 지급

오랫동안 추진돼 온 공군복제 개선안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무모가 기존의 캡 형태에서 개리슨모 형태로 바뀐다는 것. 개리슨모는 모자챙이 없어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접기가 쉬워 휴대와 보관이 편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여러 선진국의 공군 장병들도 개리슨모를 착용하고 있지요. 이 밖에도 디지털무늬의 신형전투복과 모자가 보급되고, 동약정복과 하약정복도 타이를 맬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보온성을 위해 간부용 스웨터가 새로 생겼고, 병사들의 점퍼도 더블버튼 반코트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검색머플러도 지급된다고 하네요. 더 멋스러운 공군, 더 스마트한 공군의 모습을 기대해 주십시오.



#10

월간 「공군」, 400호 발간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

이 뉴스를 「공군」지의 10대 뉴스에 넣으려니 조금은 민망합니다만.. 2011년 10월, 월간 「공군」이 드디어 400호를 발간했습니다. 6·25전쟁 직전인 1950년 4월경 창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월간 「공군」은 6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군과 함께 호흡해 왔고, 공군인들의 꿈과 희망, 삶과 문화, 시대정신 등을 전해주는 매개체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독자들과 진솔한 소통을 나누는 간행물, 독자들이 다음 호를 손꼽아 기다리는 매거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휘관 이·취임식 주관

참모총장은 작전사령관(11월 18일), 교육사령관(11월 21일), 공군사관학교장(11월 24일) 등 주요지휘관 이·취임식을 주관하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임 주한 중국국방무관 접견

참모총장은 11월 2일, 이임 인사를 위해 공군본부를 방문한 차이용(Cai Yong, 蔡勇, 육군 소장) 주한 중국국방무관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 시대의 주요 국가로서 그 어느 때보다 양국간 교류협력 증진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이면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만큼 앞으로 군사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인적교류 확대 등 활발한 논의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1 항공우주법 세미나

참모총장은 11월 17일, 공군회관에서 ‘첨단무기 발전과 항공우주력 건설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개최된 항공우주법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공군이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주영역에서의 작전수행 능력 확충과 더불어 합리적인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항공우주법 분야는 민·군 상호간 그리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AIR FORCE MONTHLY

2011. 12. NEWS

2011 공군군악 정기연주회

자부심과 비전을 연주하다.

공군군악대 창설 60주년을 자축하는 2011 공군군악 정기연주회가 11월 17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다. 이날 공군 군악대는 예비역들과 현역들이 함께한 아름다운 앙상블, 공군 '후라이보이' 밴드를 기리는 리메이크 연주, 사물놀이와 비보이의 만남, 군악대 선·후배인 가수 박현빈(575기)과 주종혁 이병(라이언, 707기)의 열창 등 어디서도 접할 수 없는 최고의 무대로 우리와 같은 환호와 갈채를 이끌어냈다. 사회 박은영 아나운서, 지휘 정천용 소령.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 상기 적 도발 대비훈련
F-15K 출격! 北 지휘소 명중 '초진박살'**

함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연평도 포격 도발 1주기에 맞춰 실시된 군사훈련에서 북한의 도발 원점 타격을 위해 출격한 11전투비행단 소속의 F-15K가 AGM-84H(SLAM-ER) 공대지 정밀 유도탄을 장착하고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전군 최초로 부대 내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추진
친환경에너지 활용, 공군이 앞장서다!**



참고사진

공군이 전군 최초로 부대 내에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공군은 제3훈련비행단 내 미활용 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1월 3일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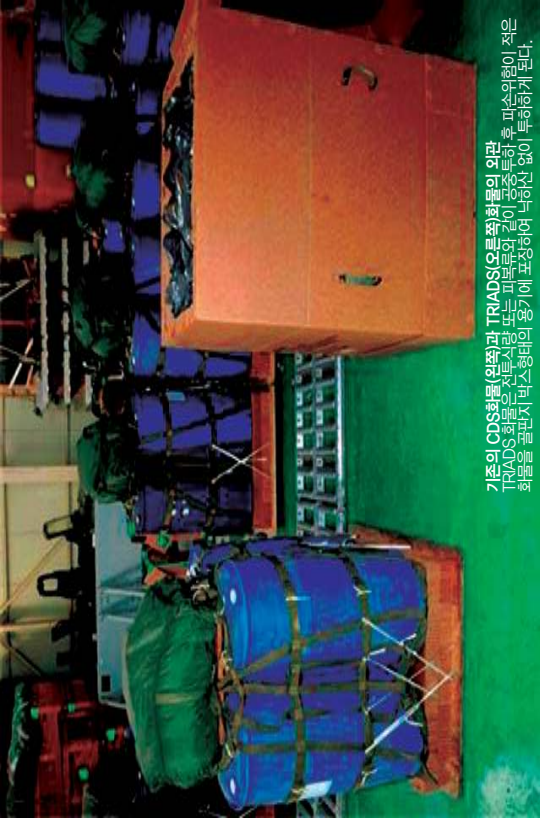
공군은 국가비전

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구현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 방안의 일부분으로 공군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함은 물론 부대 내 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12년 3월에 민간사업자가 결정되고, '12년 8월에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이 완료된다. 이후 15년간은 사업자가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게 되며, 2027년 이후에는 부대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자체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연간 2.6억에 이르는 전기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

공군자원봉사 대축제 성황리에 종료 1년간 공군에 보내주신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

공군이 11월 한 달을 '자원봉사 대축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11월 16일, 공군본부는 부대 인근지역 자연정화와 양로원 자원봉사, 농촌일손 돕기를 펼쳤으며, 같은 날 제15호성비행단은 부대외곽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했다. 17일, 제1전투비행단은 대민의료지원 봉사활동을 지원했으며, 30일 제8전투비행단은 원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등 11월 한 달 전국 각지의 공군부대에서는 총인원 3만여 명이 참가하는 '자원봉사 대축제'가 성황리에 전개되었다. 공군의 '자원봉사 대축제'는 2006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다섯번째다.





인도적 구조작전 필요성 증가에 따른 화물투하 기술개발에 기여

5전술공수비행단! TRIADS 화물투하 최초 실시

제5전술공수비행단(이하 5전비)은 지난 11월 1일, 경남의령군 일대에서 TRIADS 화물투하 전술훈련을 최초로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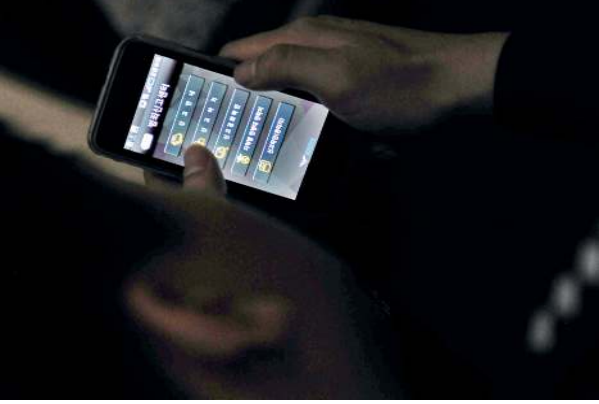
TRIADS(Tri-wall Aerial Delivery System)란 광범위한 지역에 부식이나 피복류와 같은 소규모 경량 물자를 투하·살포하기 위한 새로운 공중투하방식이다. 기존의 CDS(Container Delivery System), HE(Heavy Equipment), BDL(Bundle) 방식은 탄약, 유류, 기동장비 등의 물자를 낙하산 등과 같은 고가의 화물의장자재를 사용하여 제한된 지점(Drop Zone)에 투하했었다. 반면 TRIADS 방식은 투하지점의 제약 없이 산악·개발지 등 다양한 지역에 살포가 가능하고, 투하장자의 회수가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난민 구호물자 보급 등 인도적 구조작전 수행에 보다 적합하다. 아프가니스탄과 아이티 등 재난 지역에서 광범위한 지대에 구호물품을 TRIADS 방식으로 투하한 미군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한민국 국군 또한 국내 및 해외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구호 임무 시 이러한 화물투하방식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공군 모바일 범죄신고센터' 운영 범죄신고도 빠르고 스마트하게!

공군은 지난 11월 7일, 전국 최초로 모바일 범죄신고센터를 개발했다. 기존 공군의 범죄신고센터는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통해 이뤄졌으나, 개인용 PC가 지닌 접근성의 한계와 실명인증 등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용자들이 쉽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지적됐었다. 이에

공군헌병단과 중앙전산소는 효과적인 범죄 신고 및 접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8월 모바일 범죄신고센터 앱(Application) 개발에 착수하였다.

'공군 모바일 범죄신고센터'의 가장 특기할 만한 기능은 사진첨부 기능이다. 사건현장의 사진을 촬영하고도 개인용 컴퓨터에 업로드했던 기존의 방식에 비해, 이번 개발된 앱을 이용하면 사진촬영과 동시에 바로 신고할 수 있어 범죄 발생으로부터 신고접수에 이르는 시간을 상당부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신고된 내용은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접수 되어 보다 신속한 범죄 대응체계를 갖추게 됐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발전세미나 개최 비행안전성 검증능력을 높인다!



연구분석평가단은 11월 8일, 공군회관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을 비롯한 각 군, 관련 연구기관, 방산업체 등 각계의 항공분야 감항인증 업무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발전세

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09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기술품질원 등의 감항인증 절차와 기본틀이 소개됐으며, 제도개선과 발전방안에 대한 내용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군사관학교, '제6회 성무 학술·인성교육 심포지엄' 개최 미래전 양상과 사관학교 교육발전이 궁금하다면?

지난 11월 2일, 공군사관학교는 오창환 교장이 주관한 가운데 '제6회 성무 학술·인성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공군사관학교는 2009년부터 성무 학술 심포지엄과 인성교육 심포지엄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대외학술교류와 동시에 생도들의 인성교육과 학교발전 방향 모색에 힘쓰고 있다.



올해 심포지엄은 '미래전 양상과 사관학교 교육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오전 오창환 공군사관학교장의 환영사와 김승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오후 3개 분과(1분과 항공우주·군사과학 / 2분과 군사정책·전략 / 3분과 인성·리더십)로 나뉘어 동시에 진행되었다.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탄소관리체계 개발, 시범적용 거쳐 '12년 1월 본격 운영 온실가스 배출량, 정확하게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공군이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탄소관리체계를 개발했다. 공군본부 시설처와 공군중앙전산소가 올해 1월부터 10개월에 걸쳐 함께 개발한 '탄소관리체계'는 부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고정연소(취사, 보일러 등), 이동연소(차량, 항공기 등), 간접배출(전기, 상하수도, 폐기물 등), 기타배출(산림이용)로 구분했으며, 담당자가 월 단위로 사용량을 입력하면, 정부간 기후 변화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자동 산출되는 방식이다.

탄소관리체계는 공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해 계량화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는 공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탄소관리체계가 구축되면 부대별,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별 배출량을 점검할 수 있어, 자체 저감 목표설정 및 관리가 용이해진다.

제1전투비행단, 조종사가족 초청행사 열어 조종사인 우리 남편, 우리 아들...어떤 하루를 보낼까?

지난 11월 4일, 제1전투비행단(이하 1전비)은 조종사들의 부모와 가족 100여 명을 초청하여 전투 조종사 일과를 직접 체험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등훈련기 T-50 비행 시범부터 비행전 브리핑, 비행 장구 시범 착용, 항공기 점검, T-50 시뮬레이터 탑승까지 비행 임무 전 과정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조종사가족 40여 명은 비행 체험의 일환으로 직접 T-50 항공기 후방석에 탑승하여 실제 항공기가 이륙할 때와 비슷한 속도로 활주로를 달려보는 High-Taxi를 실시했다.

행사를 기획한 1전비 제203비행교육대대장 최용석 중령은 "일선 조종사들의 가족들에게 실제 비행 임무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조종사의 노고를 공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조종사들이나 가족 분들 간의 교감이 이뤄진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척 뿌듯하다"고 밝혔다.



친구야 *힘내!* 우리가 있잖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미용실 앞에 열한 살 된 남자아이 십여 명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이 소년들이 미용실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삭발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머리를 밀겠다고 하니 미용실 직원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한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담임선생님은 이를 말리려는 커녕 함께 머리를 깎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왜 다같이 삭발을 하기로 한 것일까요?



아이들은 한 달쯤 전부터 같은 반 친구인 이앤 오골맨(Ian O'Gorman)이 점점 살이 빠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앤은 비호지킨스 림프종이라는 악성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앤은 소장(小腸)에서 주먹 만한 크기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 오랫동안 학교에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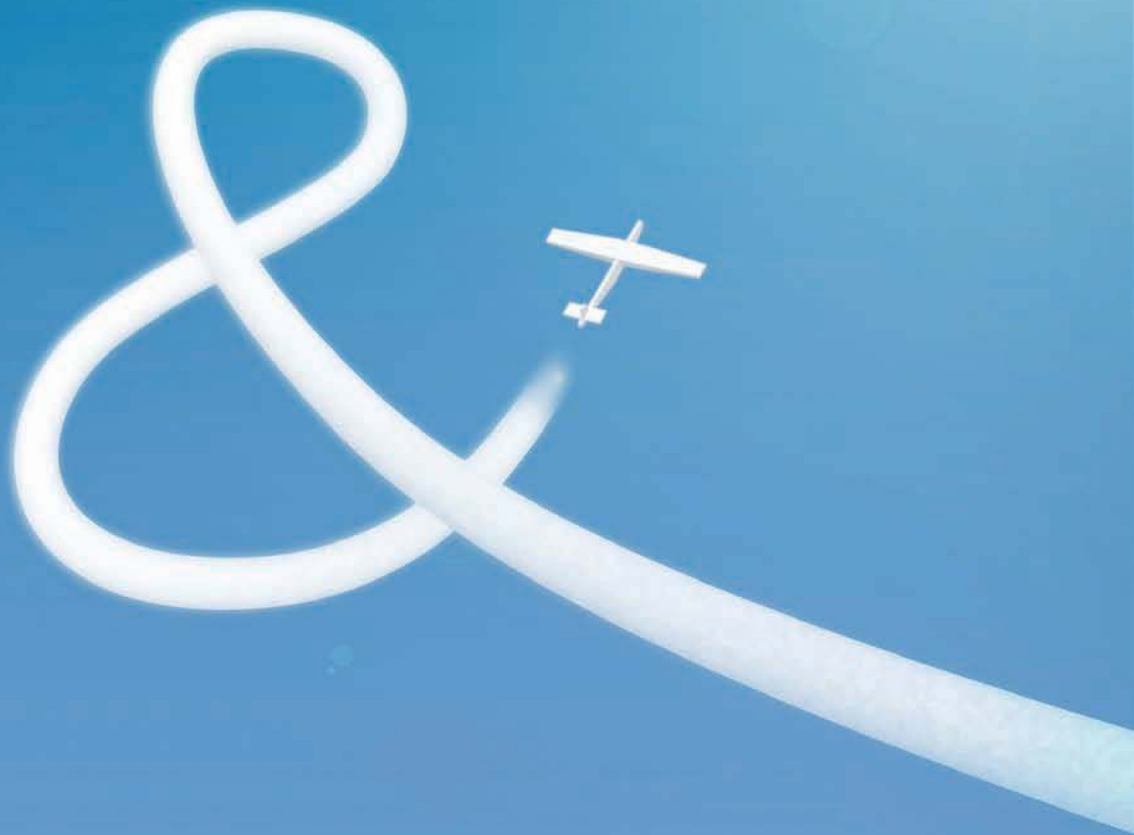
이앤의 제일 친한 친구인 타일러는 수술을 마치고 입원 중인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본격적인 항암치료와 화학요법으로 머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던 이앤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워 잔뜩 시무룩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날 타일러는 학교에 돌아와 같은 반 친구들에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나 이앤을 위해 머리를 모두 밀기로 했어. 그러면 그 녀석이 머리 빠지는 것에 대한 충격을 덜 받을 것 같아. 함께하지 않겠니? 우리가 이렇게라도 마음을 모은다면 이앤이 외로워하지 않고 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을 들은 다른 학생들은 너도 나도 머리를 깎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기특해서였는지 담임선생님도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아름다운 ‘우정의 삭발’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인 까까머리가 어색한지 서로를 보며 대머리 독수리 같다고 깔깔거리는 이 아이들은 친구를 위한 마음만큼은 단연 1등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동심은 끝없어...

하늘과 우주를 향한 꿈과 희망.

<http://www.yfk.or.kr>



Culture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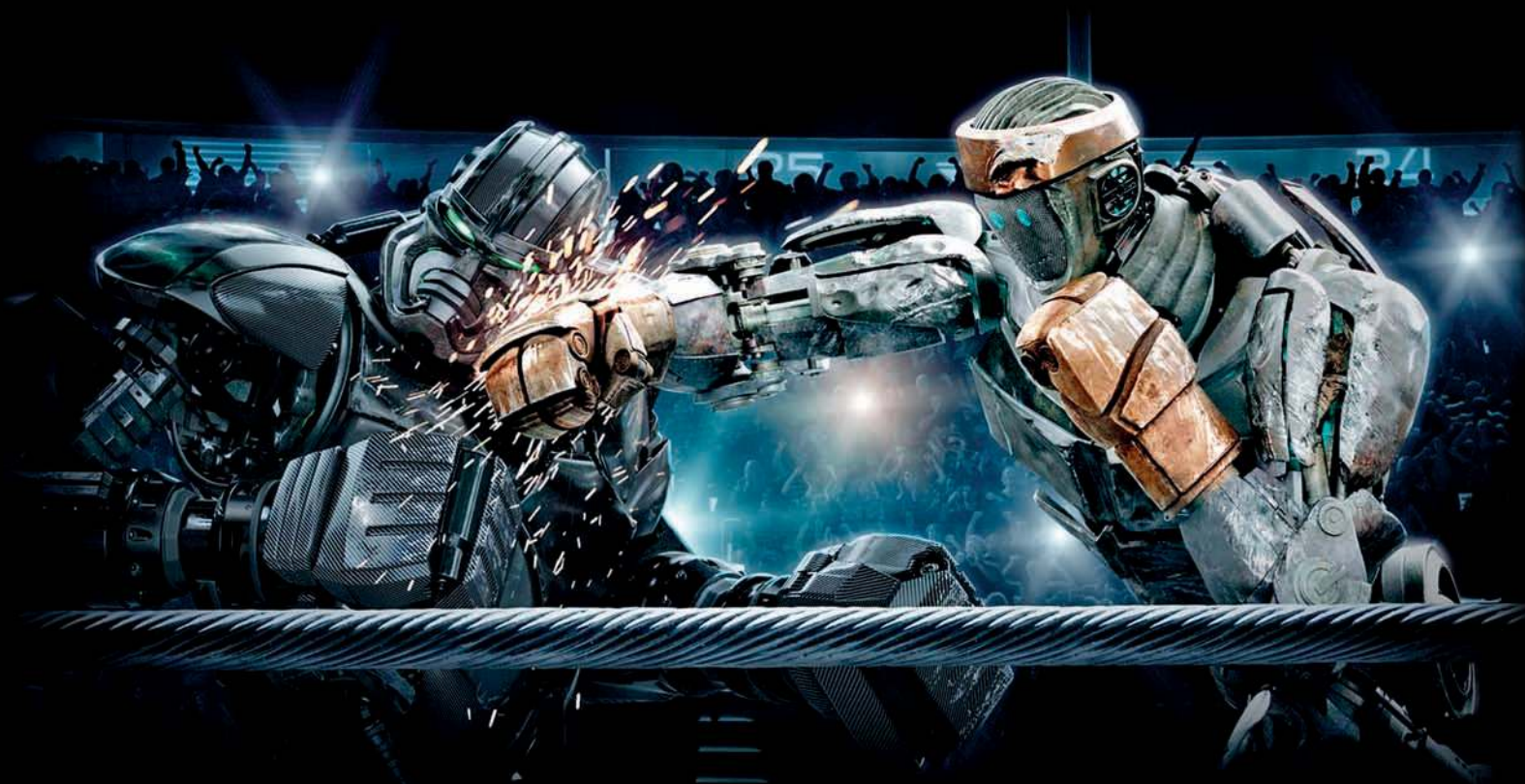
Hollywood English 리얼 스틸

인생은 아름다워 가난한 예술가의 크리스마스 이브 <라보엠>

Art in Everyday Welcome to the bathroom

Air-Supply 달인 김병만

Preview 12월의 문화행사



리얼 스틸

REAL STEEL

SEE IT IN CINEMAS

로봇, 인간과 교감하다

교감(chemistry, 交感)이란 '이성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끌리는 감정(the feeling between two people who are attracted to each other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reason or science)' 이지요. <리얼 스틸, Real Steel>은 '강철보다 강한 교감'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은 물론 인간과 로봇의 교감까지 다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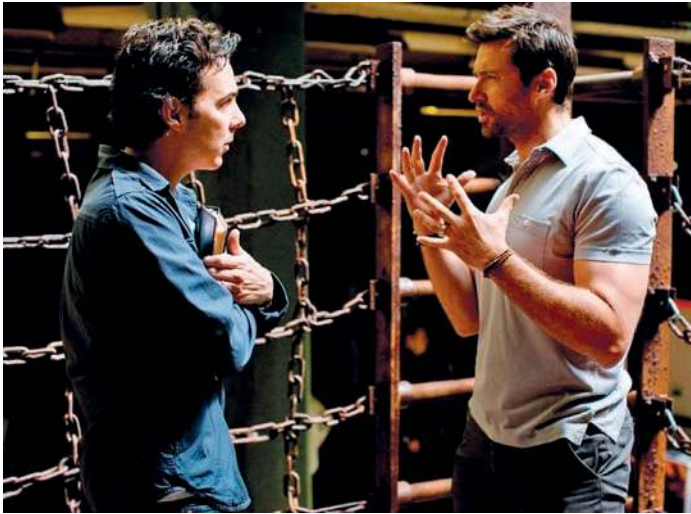
로봇 복싱 프로모터, 아들과 재회하다

때는 2020년의 미래. 복싱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인간은 로봇 복싱 엔터테인먼트를 키웁니다. 체급은 하나, 오직 무제한급뿐! <리얼 스틸>은 두 개의 큰 감동 무기를

영화에 장착했는데요, 그 무기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부성애, 또 하난 로봇과 소년의 우정입니다. 영화는 엄마를 여윈 소년이 10여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찰리(휴 잭맨)는 아들 맥스(다코타 고요)의 출현을 불편해 합니다. 찰리는 연인과 아들을 내팽개쳤던 옛날처럼 이번에도 무책임하게 굶니다. 맥스의 양육권을 남에게 넘기려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맥스가 반발합니다. 찰리가 거금 10만 달러를 받기로 한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버림받은 소년, 고철 로봇과 교감하다

양부모는 선불로 5만 달러를 주면서 한 달간 유럽여행을 다녀와 잔금을 치를 테니 맥스를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처음엔 못마땅했지만 큰 빚을 진 처지여서 찰리는 제안을 수락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찰리는 '밑바닥 인생(bottom feeder)'



입니다. 참고로 'bottom feeder'의 원뜻은 먹이사슬(food chain)의 맨 아래쪽에 속한 동물을 뜻하는데요, 속어로 쓰일 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미끼로 이익을 챙기는 기회주의자(an opportunist who profits from the misfortunes of others)'입니다. 찰리는 내기 복싱에 나가는 족족 패하며, 그가 가진 유일한 로봇도 만신창이가 됩니다. 빚은 불어나고, 걱정도 태산입니다. 결국 경기용 새 로봇이 필요해진 찰리는 로봇 폐기장에 갑니다. 그런데 따라간 맥스가 발을 헛디더 까마득한 수렁에 빠집니다. 다행히 맥스는 기적적으로 구출됩니다. 구세주는 찰리일까요? 아닙니다. 고철 로봇 아톰입니다. 폐기된 채 땅속에 박힌 아톰의 팔에 맥스가 걸린 것이지요. 죽다 살아온 맥스를 찰리의 동거녀인 베일리가 활짝 마중합니다. 베일리의 아버지는 한때 찰리에게 복싱을 가르친 분이며 딸에게 복싱 도장을 물려줬는데요, 베일리의 부업이 격투용 로봇을 고치는 일입니다. 베일리는 아톰을 수리해줍니다. 맥스의 다친 마음도 어루만져 줍니다.

세기의 복서 레너드, 아톰을 조련하다

컴퓨터 게임광인 맥스는 동작인식 기능이 장착된 아톰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고철일 뿐인 아톰의 운명은 험난해 보입니다. 결국 로봇 복싱의 프로모터인 찰리가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철 로봇이 큰일을 냅니다. 주인인 맥스의 사랑에 화답이라도 하듯 뒷골목 내기 경기에 나가 연승을 거둔 것이지요. 약삭빠른 찰리는 아톰을 팔아 한 몫 챙기자고 부추깁니다. 맥스

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아뿔싸, 부자간에 겨우 정이 붙을 무렵 여행에서 돌아온 양부모가 맥스를 요구합니다. 찰리와 아들은 끝내 이별합니다. 고뇌 끝에 찰리는 양부모와 맥스에게 애원합니다. 맥스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아톰에게 세계 최강 로봇과 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며...! 모처럼 맥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찰리는 자신해 아톰을 훈련시킵니다. 실은 5개 체급에서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던 전설적 복서 슈거 레이 레너드가 훈련시킨 것입니다. <리얼 스틸>에 등장하는, 컴퓨터로 조작되는 모든 로봇의 복싱 장면은 모션 캡처 기술(motion capture technology)로 촬영한 것이니까요. 아톰의 복싱 기술은 슈거 레이 레너드로부터 전수(?)받은 셈이지요.

Chemistry is stronger than steel!

드디어 챔피언 타이틀전에 오른 아톰의 상대는 제우스입니다. 체격으로나 기술로나 아톰이 애처러워 보입니다. 마침내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오일이 쏟아지고 볼트가 튕니다. 패색이 짙어진 아톰. 그러나 1974년에 열린 세기의 타이틀매치에서 알리가 포먼을 꺾을 때 쓴 작전처럼 아톰은 최종 라운드까지 기다리다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찰리의 복싱 동작을 따르며 아톰이 난타전에 돌입한 순간부터 극적 감동이 고조됩니다. 지금은 퇴물이지만 찰리도 한때 잘 나간 복서였기에 찰리를 따라 움직이는 아톰은 펀치가 전광석화입니다. 찰리는 아톰을 기쁘게 하려고 죽을힘 다해 주먹을 던집니다. 땀으로 얼룩진 아버지의 눈, 그 눈을 바라보는 맥스의 눈, 관중석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베일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그들의 교감은 깊어만 갑니다. '사랑의 깊이는 교감의 깊이에 비례하는 것(Love is a matter of chemistry)'임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곤 경기 종료! 경기 결과는? 스포일러입니다. 가려둡니다. 미국 포스터의 광고 문구는 '용기는 강철보다 강하다(Courage is stronger than steel)'이지만 이 작품은 "Chemistry is stronger than steel", 즉 '교감은 강철보다 강하다'는 걸 웅변합니다. **AF**





가난한 예술가의 크리스마스 이브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오페라 작품이 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 한켠이 시려오는 아름다운 작품, 푸치니의 <라보엠>... 가난한 예술가의 사랑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1830년경 파리의 어느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된다. 한겨울, 눈 내리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브... 하지만 그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네 남자가 있었으니, 이들은 시인 로돌포와 화가 마르첼로, 음악가 쇼나르드, 그리고 철학자 콜리네였다. 비록 춥고 굶주린 삶을 살았지만, 아름다움을 위해, 참된 진리를 위해 배고픈 현실도 참을 수 있었던 이들은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사람들이었다. 이들 4명의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된다.

벽난로에 쓸 땀감도 떨어진 낡고 초라한 다락방... 이 다락방에 내린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로돌포는 종이를 떼고 있다. 땀감으로 쓰고 있는 종이는 바로 로돌포가 쓴 희곡 원고...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뿐이었다. 가진 것도, 도와줄 손길도 없는 이들은 그저 종이 땀감에서 나오는 온기 속에 노래를 부르며 추위를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음악가 쇼나르드.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 그의 손에는 술과 음식, 그리고 돈이 들려 있었다. 비록 허기를 면할 정도의 음식과 잠시 추위를 달랠 정도의 술이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이브... 주머니가 언제나 가벼운 이들이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브만큼은 카페에서 보내기로 한다.

친구들을 카페로 먼저 보내고 남은 원고를 쓰고 있는 로돌포... 로돌포가 마지막 원고를 고치고 있을 때, 밖에서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곳에 사는 여인, 미미... 기침을 하며 창백한 얼굴을

하고 들어오는 미미는 촛불을 들고 불을 붙여도 되냐며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불을 붙이고 나가던 그녀는 잠시 후 다시 방으로 들어온다. 어딘가에 방문 열쇠를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바로 그때 방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한겨울의 바람은 미미의 촛불도, 허름한 아파트의 촛불도 꺼뜨리고, 로돌포와 미미는 어두운 밤에 단둘이 남게 된다.

귀여운 미미... 그녀는 귀족적인 모습에 분홍빛 피부를 지닌 여인이었다. 병을 앓고 있어 더욱 가녀렸던 그녀의 보드라운 살결에 로돌프는 넋을 잃고 말았다. 더구나 로돌프를 더욱 미미에게 빠져들게 한 것은 그녀의 손. 작고 하얀, 그렇지만 너무나 차가웠던 미미의 손... 어두운 방 안에서 열쇠를 찾던 로돌프는 우연히 잡게 된 미미의 손을 느끼며, 조용히 말한다. "이 작은 손이 어찌 이리 차단 말ियो! 내가 따뜻하게 해주리다! 열쇠는 찾아서 무엇하오? 어둠 속에서 찾아지지는 않을 거요." 이렇게 안심시키며 미미를 의자에 앉힌 로돌포는 아리아 '그대의 찬 손'을 노래한다. "내가 누구냐구요? 난 시인이지요. 무엇을 하느냐고요? 글을 쓰지요. 이 즐거운 가난 속에서 귀족이 나 된 것처럼 시와 사랑의 찬가를 쓰지요. 그런데 백만장자나 다름없는 내 영혼의 금고에서 보석을 모두 훔쳐가는 도둑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름다운 두 개의 눈동자... 자, 이제 아가씨, 말해 봐요, 아가씨 누구신지? 말해줘도 괜찮겠지요?" 즐거운 가난 속에서 글을 쓰는 시인 로돌프... 그는 미미에게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한다. 이내 가까워진 두 사람... 미미와 로돌프는 친구들이 있는 카페로 함께 가고, 이제 두 사람은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낸다.

음악이 흐르는 파리의 어느 카페. 크리스마스 이브의 흥겨운 축제 속에 화가 마르첼로는 그의 옛 애인 무제타를 만난다. 나이 많은 애인과 카페에 온 무제타, 그녀는 그들을 잠자코 바라보는 마르첼로를 끊임없이 자극한다. 재력 있는 정부 관료인 애인을 옆에 두고도 마르첼로를 유혹하는 것이다. 옛 애인을 다시 만난 설렘에 들뜬 무제타... 그녀는 나이 많은 애인을 보내버리고 마르첼로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다. 한겨울의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이브, 꿈 많은 젊은이들은 가난도 추위도 잊은 채, 가장 행복하고 감미로운 밤을 보낸다.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미미는 무제타와 여관에서 함께 살고 있는 마르첼로를 만나기 위해 눈 덮인 길을 나선다. 그녀의 건강은 예전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마르첼로를 만난 미미는 자신을 의심하는 로돌포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여관에서 걸어 나오는 로돌프, 그는 미미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미미는 무정한 여자'라며 불평을 늘어놓는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안타까운 상황... 크리스마스 이브에 맺어진 또 다른 연인, 마르첼로와 무제타 역시 심각한 상황이었다. 마르첼로는, 무제타가 다른 남자를 유혹하려 한다고 화가 난 것이다. 미미와 로돌프, 그리고 마르첼로와 무제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던 이 두 연인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의심하는 마음까지 더해져 고작 두 달간의



사랑 후에 이별을 결심한다.

이제무대는 다시 허름한 아파트. 연인을 잃은 남자들은 다시 골방에 모여 앉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마르첼로와 글을 쓰는 로돌

프... 그들은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

며 작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마

음속에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이들을 달래주는 이는

어김없이 콜리네와 쇼나르드였다. 음식과 술을 가지고 들어온 두 사람은 그들의 걱정을 잊게 해주려 집짓 유쾌한 척한다. 이때 들려오는 노크 소리. 방문을 열고 들어온 여인은 다름 아닌 무제타, 그녀는 급박한 목소리로 밖에서 미미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더욱 병약해진 미미... 그녀는 로돌프를 보기 위해 집을 찾았던 것이다. 하지만 집에 남아있는 건 아무 것도 없고, 부축을 받아 침대에 누운 미미를 위해 친구들은 귀걸이와 외투를 팔러 나간다. 이제 이전처럼 단둘이 남은 미미와 로돌프... 침대 위에 누운 미미와 그녀 앞에 무릎 꿇은 로돌프... 이 두 사람은 행복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달콤한 꿈을 꾸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의 행복했던 밤처럼, 이제 이들 사이에는 그 어떤 원망도 미움도 없었다. 미미에게 드는 햇볕을 가려주기 위해 창가로 가는 로돌프... 하지만 그 사이 미미는 로돌프의 간병을 받는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남는다. 어느 가난한 예술가를 사랑한 그녀는 늦겨울의 햇살 속에 조용히 숨을 거둔다. **AF**





구본창, Group of Soaps, 2009

뉴질랜드의 북 섬 끝자락에는 깨끗하기로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북 섬 최고의 휴양지, 베이 오브 아일랜드즈(Bay of Islands)가 있다. 낚시와 항해로 유명한 이 지역에는 띄엄띄엄 작은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천삼백 명 남짓한 주민이 모여 사는 카와카와(Kawakawa)도 그중 한 곳이다. 특별한 볼거리가 없던 이곳에 주민 수의 수백 배에 달하는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화가, 프리덴슈 라이히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Hundertwasser)의 공중화장실이 문을 열면서부터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곳에 흐르는 백 개의 강'이란 의미를 가진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라는 이름의 이 화가는 건축가이자 환경 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자연에는 직선이 없으며, 인간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다양한 건축물들을 이 땅에 남겼다.

그가 처음 뉴질랜드에 오게 된 건 1970년대 초반이었는데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에 첫눈에 반해 1975년부터는 뉴질랜드에 정착해서 뉴질랜드를 제2의 조국으로 삼았고 이후 오스트리아를 오가면서 생활하다 뉴질랜드에서 눈을 감았다. 그는 카와카와 마을에 있던 40년이 넘는 오래된 공중화장실을 헐고 새로 공중화장실을 짓게 되었을 때, 자신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건물을 지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함으로써 이 마을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바꿔 놓았다. 그는 이 공중화장실을 만들면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알록달록한 세라믹 조각들과 재활용 병들, 콘크리트, 재활용 벽돌 등을 사용했고, 벽들은 모두 곡선으로 처리했으며 지붕에서 풀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자신의 색채를 아낌없이 드러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만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 훈데르트바서



- | | | |
|---|---|--|
| 1 | 2 | 1 · 2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sh Hundertwasser),
카와카와 공중화장실(Kawakawa Public Toilet), 1999 |
| 3 | | 3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샘(Fontaine), 1917, 63 x 48 x 35cm |

그는 이 공중화장실이 완성된 두 달 뒤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말처럼 그가 남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은 시간이 갈수록 그 자신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세상에 알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는 어찌 보면 예술가들의 특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떻게 건물이 될 수 있어?'라는 사람들의 편견을 보란 듯이 깨고 알록달록 색깔이 노래하는 듯한 건물을 완성한 훈데르트바서 이전에도 수백 년 동안 이어온 미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예술가가 있었으니 바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다.

1917년 4월 뉴욕에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전시할 작품을 선택해오던 이전까지의 살롱 전에 대한 비판으로, 6달러만 내면 누구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독립 살롱 전시가 준비되고 있었다. 전시를 이틀 앞둔 어느 날, 전시 준비위원회에는 'R.Mutt'라는 사람이 보내온 '샘'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배달되어 왔는데 그 내용을 때문에 전시 준비위원회에는 큰 혼란이 일어났다. 미국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남성용 소변기에 'R.Mutt'라고 서명한 것이 전부인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당황한 전시 준비위원회는 결국 이 작품을 전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은 미술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립 살롱 전을 준비하던 사람들 역시 그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밝혀진 사실은 이 작품을 전시 준비위원회에 보낸 인물 'R.Mutt'가 그 자신이 전시 준비위원이기도 했던 마르셀 뒤샹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준비위원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당시 미술계가 가진 허위와 권위 의식을 다시 한 번 교집은 것이다.

붓 한 번 휘두르거나 흙 한 번 주무르지 않은 채, 공장에서 생산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남성용 소변기가 작가가 붙인 '샘'이라는 제목과 'R.Mutt'라는 서명

만으로 미술작품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술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져 갔다.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인가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생각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개념미술이 탄생했고, 예술가들의 생각과 수많은 다른 분야의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미술작품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마르셀 뒤샹의 시도는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사물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일상의 모든 사물들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탐험하고 있는 화장실 안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을 발견한 이가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진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사진작가 구본창. 그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일본의 시각디자이너 야마구치 노부히로와 함께 '책과 사물'이란 전시를 가졌다. 이 전시에서 구본창이 선보인 것은 '일상의 보석'이란 제목을 가진 비누 사진이었다. 기본적으로 깨지거나 부서지기 쉬운 것들에 대해 애정을 느낀다는 그가 서서히 녹아 사라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평범한 비누조각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고, 그 사진 속에서 일상의 사물인 비누는 반짝이는 보석이 되어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서 만나고, 손끝에 머물던 비누조각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다니, 하는 놀라움과 함께 그의 사진들을 감상하면서 나는 하루에도 수차례 일상의 보석을 만나면서도 알아보지 못한 내 무심함을 탓했다. 그리고 매번 그 일상의 보석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을 누렸을 사진가를 질투하는 동시에 일상의 모든 것이 예술이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무엇이든 반짝이는 보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많은 예술가들의 도전에 고마움을 느낀다. **AF**



장병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 하나부터 해야겠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회의 직장인들이 일요일 저녁에 가장 즐기는 것 중 하나는 KBS <개그콘서트>를 보는 것이다. <개그콘서트>의 마지막에 나오는 기타 연주를 보면 곧 월요일이 온다는 실감이 날 정도다. 군인들이 점호를 하고 취침을 할 시간에 <개그콘서트>를 보고 있으려니 살짝 미안할 밖에.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당분간은 <개그콘서트>를 보는 재미가 좀 떨어질 것 같다. <개그콘서트>에서 4년 가까이 방영되던 '달인'이 지난 11월 13일 끝났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개그맨 김병만이 와인 감별의 달인으로 등장해 시작한 '달인'은 그동안 술한 화제를 낳으며 인기를 모았다. 처음에는 '16년 동안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산 달인'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달인임을 우기던 김병만은 어느 순간부터 진짜 '달인'으로 활약했다. 정말로 외줄을 탔고, 정말로 줄넘기를 하며 온갖 묘기를 부렸다. 김병만이 요즘 SBS <정글의 법칙>에서 어떤 문명의 도움 없이 정글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SBS <일요일이 좋다>의 '키스 앤 크라이'에서 피겨스케이팅에 도전한 것도 '달인'에서 온갖 힘든 도전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김병만의 '달인'이 단지 한 코너에 머무르지 않았던 이유다.

김병만이 정말로 온갖 노력을 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에 도전하면서, 김병만은 노력과 성실함의 대명사가 됐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김병만이라면 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다. 김병만에 관한 책이 나오고, 김병만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슈가 됐다. 그는 정통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했지만, 마치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처럼 늘 끊임없는 과제에 도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달인'이 정통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를 통해 방영됐다는 점은 중요하다.

〈개그콘서트〉, SBS 〈코미디 투나잇〉, tvN 〈코미디 빅리그〉 같은 프로그램은 TV 오락 프로그램 중 가장 출연 가능성이 높지만, 동시에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

잘생기건 못생기건, 집안 환경이 좋건 나쁘건, 학력이 높건 낮건 웃길 수만 있다면 누구나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다. 코믹 프로그램에서 별 볼일 없는 고시생의 이야기나 평범한 연인들처럼 기존 TV프로그램에서 보기 어려운 소재들이 자주 등장했던 이유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지금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코미디언들은 대학로 코미디 극장부터 엄청난 경쟁을 치렀다.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해도 경쟁은 계속된다. 코미디언이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코너를 가지려면 제작진 앞에서 자신의 코너를 어필해서 통과해야 한다.

예를 한 번 들어보자. 〈개그콘서트〉의 경우, 녹화 당일 웃기지 못한 코너는 '통편집'을 당하기도 한다. 〈코미디 빅리그〉는 이런 제작 방식을 프로그램 포맷으로 정착시켰다. 코미디언들은 각자 팀을 짜서 경쟁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경쟁에서 1위를 한 출연자들은 상금 1억 원을 받는다. 대신 매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팀은 〈코미디 빅리그〉의 재방송에서 편집된다. 잔인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는 유재석 같은 초특급 MC가 없다. 대신 방송마다 계속 웃겨서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절박한 코미디언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공정한 경쟁으로 우위를 가리는 게 낫다. 그들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시청자들도 다른 리얼리티 쇼의 경쟁보다 더 '잔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도 한다. 계속 경쟁에서 이겨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져야 그나마 안정권에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개그맨들이기 때문이다.

〈개그콘서트〉가 지난 1999년에 시작, 방송 12년째이지만 인기를 꾸준히 유지하는 코미디언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김대희, 김준호, 유세윤 등 몇몇 대표적인 코미디언들을 제외하면 잠깐 반짝하거나 버라이어티 쇼로 진출해 코미디를 사실상 그만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병만의 가치는 여기서 빛난다. 대부분의 개그맨들은 공개 코미디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버라이어티 쇼에 진출한다. 버라이어티 쇼가 코미디 프로그램보다 훨씬 반응이 좋기 때문이다. 코미디와 버라이어티 쇼 양쪽에서 성과를 올리는 개그맨은 유세윤 정도가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만은 '달인'을 통해 어느 유명 MC 못지않은 인기와 지명도를 얻었다. '달인'에서 김병만이 어떤 과제에 도전했는지 화제가 됐고, 김병만의 '달인' 캐릭터를 바탕으로 오락프로그램과 CF가 만들어졌다. 김병만은 개그맨들에게 코미디만 해도 남부럽지 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김병만이 지난해 KBS 〈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뒤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는 치열하게 노력한다면 코미디 프로그램만으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몸만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래서 김병만의 '달인'의 폐지는 코너 하나가 떠나가는 것만은 아니다. 비록 소재고갈이 이유라 할지라도 공개코미디 프로그램이 가장 내세울 수 있고, 가장 큰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코너와 개그맨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병만의 잘못은 아니다. 김병만이 언제까지 '달인'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김병만은 박수칠 때 떠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김병만이 〈개그콘서트〉를 떠난 뒤 코미디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지금의 개그맨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가에 대한 숙제가 남았다. 〈코미디 빅리그〉처럼 경쟁제도와 큰 상금을 마련해 개그맨들에게 더 분발을 촉구하는 만큼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방법도 있다. 또한 〈개그콘서트〉에서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애매한 문제들을 정리해주는 '애정남'이나 요즘 세태를 풍자하는 '사마귀 유치원' 같은 풍자 코미디도 가능할 것이다. 개그맨들은 다시 한 번 '달인'처럼 노력과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달인'이 끝난 뒤에도 〈개그콘서트〉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밤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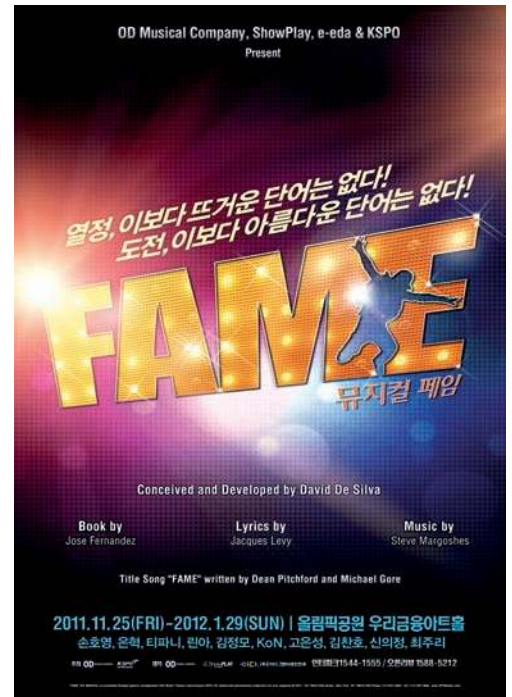
아이돌 스타가 한자리에, 뮤지컬

〈페임〉

노래와 춤, 연기, 연출 등 예술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P.A 공연예술학교에 엄격한 오디션을 통과한 소수의 인재들이 모인 곳, 그중 상위 1%가 되기 위해 최고를 꿈꾸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 줄 캐스트가 공개됐다. 손호영과 슈퍼주니어의 은혁, 소녀시대의 티파니, 천상지희의 린아, 트랙스의 김정모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보급 아이돌이 한자리에 모였다.

뮤지컬 〈페임〉은 에너지 넘치는 춤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 청춘들에게 꿈의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계의 '성서'와 같은 작품이다. 배경이 공연예술학교인 만큼 연기와 발레, 바이올린, 관악기 연주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주제곡 'FAME'과 다이내믹한 춤, 재즈, 힙합, R&B, 소울에서 발라드까지. 아이돌 스타가 들려주는 그들의 청춘, 음악 에세이가 올 한 해 아쉬움을 열정으로 채워줄 것이다.

- 기간 : 2011년 11월 25일~2012년 1월 29일
- 장소 :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 홈페이지 : <http://twitter.com/#!/FAME20111125>
- 가격 : VIP 11만 / R 9만 9천 / S 7만 7천 / A 6만 6천원



가슴 시린 그날의 기억, 박정현+성시경 콘서트

〈그해, 겨울〉

콘서트 〈그해, 겨울〉은 그간 박정현과 성시경, 두 사람의 일정으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던 '꿈의 콘서트'이다. 〈그해, 겨울〉이 올해 말 연인이라면 반드시 관람해야 할 로맨틱한 공연 가운데 최우선 순위에 꼽히는 이유,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많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박정현+성시경 Love Concerto 〈그해, 겨울〉'은 선곡에서부터 무대 디자인까지 연말, 연시 관객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했다. 특히 올해 12월 31일과 다음해 1월 1일을 맞이 하게 될 12월 31일의 두 번째 공연에서는 관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굳이 〈여신〉, 〈요정〉 같은 다소 그녀가 부담스러워 하는 별칭을 붙이지 않아도 이미 한국 대중음악 팬들과 동료 아티스트까지 최고라고 인정하는 디바 박정현. 축축하게 적서오고 포근하게 느껴지며 부드럽게 만져지는 듯한 목소리, 성시경. 그들이 주인공이 돼 가슴 저민 사랑의 이야기가 한 편의 영화 처럼 라이브 무대에서 펼쳐진다. 올 겨울,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만난다.

- 부산 : 4일(부산 벡스코)
- 대전 : 10일(대전 무역전시관)
- 대구 : 17일(대구 엑스코 신관 1층)
- 광주 : 24일, 25일(광주 영주 실내 체육관)
- 서울 : 29일, 30일, 31일(잠실 실내 체육관)



Opinion

독자기고 40년 전 무공수훈을 다시 회상하며...

책마을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40년 전 무공수훈을 다시 회상하며...

올해 제63회 국군의 날을 맞이해, 호국용사로 선정된 것은 나와 함께 하늘을 누볐던 전우들의 덕택이라 여겨진다. 40년 전 무공수훈을 다시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어 그저 만감이 교차할 뿐이다.

1971년 6월 1일 새벽 03:50, 나는 F-5B로 야간비상대기 중 서해 흑산도 근해에서 간첩선을 추격해 격침한 바 있다. 그 당시 AC-46 조명기는 적의 대공포화에 격추돼 승무원 전원이 전사했고, 후속 AT-33은 피격되어 비상착륙한 치욕의 상황이었다. 당시 작전해역 서쪽은 칙흑같이 캄캄했고, 동쪽은 수평선 너머 실루엣만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였다. 그때 때마침 육안으로 어렵פות이 물줄기를 발견했다. 수상하다고 여겨 표적정보(Target information)를 받은 후 확인차 식별("ID" pass)을 시도하는 순간, 물줄기가 지그재그를 그리며 중국 본토 방향으로 도주하는 것이 아닌가?

선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물줄기 상방향에 타깃을 겨냥했다. 2.75인치 로켓 19발이 내장된 "LAU-3"를 발사하려는 순간, 대공포화가 번개처럼 작렬했다. 탄막을 이리저리 헤치며 네 번에 걸쳐 물줄기를 공격하고 나니, 물줄기는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침몰하는 선체를 볼 수 있었다.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긴 피로감이 몰려왔다.

이제 임무를 끝나치고 기지로 복귀해야 한다. 고도를 유지하면서 연료를 체크하니 하필이면 귀환연료가 부족한 게 아닌가. 즉각 최적 순항고도(Best cruise Altitude) 33,000피트로 상승하면서 레이더 관제소에 상황을 알리며, 지상관제정밀접근(GCI-GCA)으로 기지 귀환을 시도했다. 최적순항고도를 유지하면서도 연료계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연료가 점점 줄어든 때마다 마치 피가 마르는 듯했다. 온 몸은 어느새 식은땀으로 젖어있었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왔다.

이 순간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몇 번이나 다짐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신께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나니,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정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기지를 향하여 마지막 연료가 고갈되는 순간까지 최대한 활공하며 가급적 육지에 보다 더 가까이 비행하기로 결심했다. 비상연료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비행하는 심정이란, 정말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실수하면 바로 죽음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이랄까. “애간장을 태운다.”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심리 상태이라 생각됐다. 지상관제정밀접근(GCI-GCA Straight Approach)으로 비행하면서, 극한의 상태에서 비행하기란 내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구름을 뚫고 활주로 끝에 안착하니 때마침 연료가 딱 고갈됐다. 돌이켜 생각하니, 이 모든 일련의 상황이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나중에 확인한 사실이지만, 잔여 연료로 도저히 귀환할 수 없는 비행거리를 날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성층권의 제트기류(Jet stream)가 110노트(knot)의 배풍으로 불어 준 까닭에 순풍을 단 듯 순항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외부 장착물을 순간순간마다 적기에 투하한 것 등이 유효했다고 한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히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한 정신과 적절한 임기응변 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한 사람의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6·25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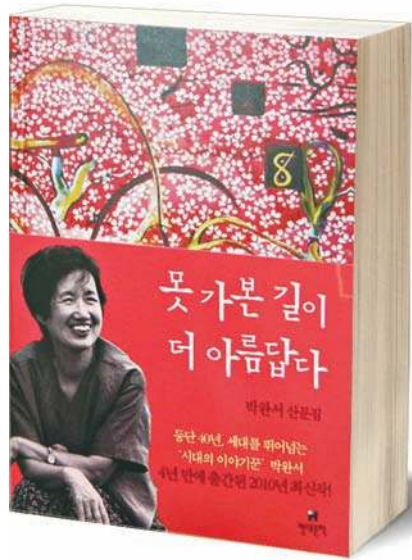
MIG-15로 귀순한 노금석 대위가 받은 보상금이 10만불이었는데, 당시 한 사람의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이 무려 8만불이었음을 감안하면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즘은 한 사람의 단독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종사를 양성하는 비용이 기종에 따라 무려 50억에서 135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막강한 공군력으로 밤낮으로 폭격하는 속에서 영국을 구한 것은 얼마 안 되는 영국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였으며,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국회연설에서 “인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은 수의 조종사에게 그렇게 큰 빚을 진 적은 없다.”(Never in the human conflict was so much owed by so many to so few)라며 조종사들을 극찬한 바 있다.

때늦은 감이 없지만 “필박”여사의 “늦었지만 안한 것보다 낫다.”(It's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말처럼, 40년이 지난 지금 호국용사로서 노고를 위로하고 업적을 칭찬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감사할 뿐이다. 프랑스의 작가 “알퐁스 도데”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 몫이다.”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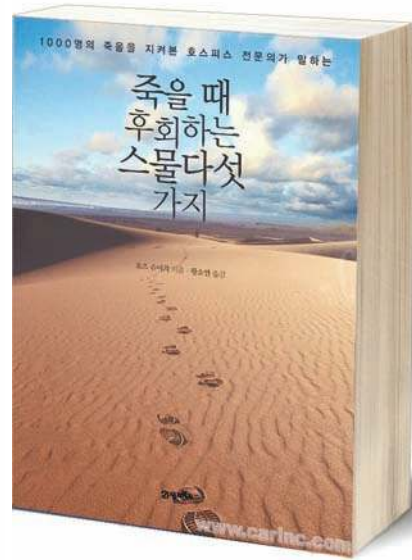
기회는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미래의 운명은 개척하는 사람에게 펼쳐질 것이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대기하며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고, “고진감래”의 희열을 직접 체험해 보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 지금 이 순간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피어나는 꽃처럼 여생을 살고자 한다. 또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회에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을 조용히 다짐해 본다. **AF**





박완서 지음



오츠 슈이치 지음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 첫날, 새아침을 맞이하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 해맞이 명소를 찾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2012년도 어느덧 달력 한 장만큼의 여유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새해를 맞이하며 계획하고, 다짐하고, 기원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곤 하지만 남은 것은 후회요,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니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대학시절 제게 시를 가르쳐주셨던 스승님께서는 12월을 '오직 하나뿐인 신에게 경건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달'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12월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노력에 비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족한 노력으로 인하여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2월에는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책들을 골라봤습니다.故 박완서 선생님의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박완서 저, 현대문학, 2010)와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의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오츠 슈이치 저, 황소연 역, 21세기북스, 2009)를 소개합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故 박완서 선생님의 유작이 된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는 선생님께서 암투병으로 생의 마지막 시절 주로 쓰신 글들로 삶의 성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른 작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얻은 깨달음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오츠 슈이치의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는 호스피스

전문의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생의 마지막 순간과 그 순간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보고, 느낀 점들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어쩌면 죽는 순간 후회하게 되는 스물다섯 가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만 하는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12월,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채 후회하는 어리석음을 이제 더 이상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오늘을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무슨 후회할 일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또 어떠한 일을 다 마치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을까요? 내일로 미뤄 둔 일은 없나요?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아쉬워하고 있는 일은 없나요?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욱 값진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책마을」 가족 여러분께 2011년은 어떠한 한 해였는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로 남은 2011년을 보내고 계신지요?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또 어떠한 다짐들을 하고 계신지요? 부디 올 한 해도 여러분께 뜻 깊은 한 해로 기억되고, 다가올 새해도 더욱 희망차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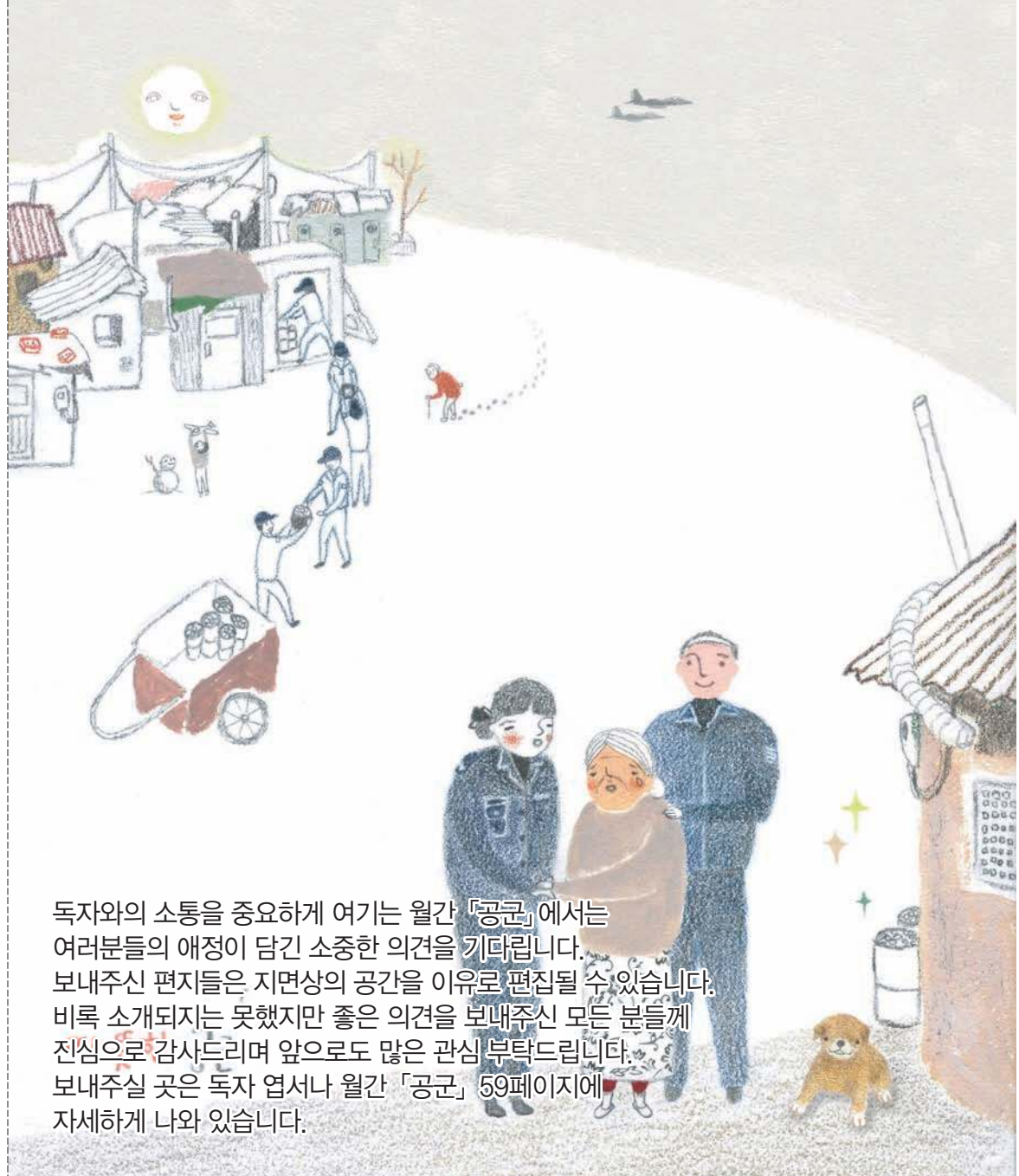
2011 December

Vol.402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 퀴즈 이벤트 응모는 QR 코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들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1.5.1~2012.4.30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공군과
월간 「공군」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 December

Vol.402

P
O
S
T
C
A
R
D

월간 「공군」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월간 「공군」은 □□이다.

.....

◎ 월간 「공군」 12월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글은?

.....

◎ 월간 「공군」에서 다뤘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은?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12월호 퀴즈 정답

1. _____

2. _____

3. _____



퀴즈 정답자에게는
월간 「공군」 표지와
동북아 최고의 전투기
F-15K가 입혀진
카드 USB 8G를
보내드립니다.



월간 「공군」 12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12월 30일까지

1. 겨울철 자율신경의 과민반응으로 얼굴이 붉게 변하는 이 질환은 무엇인가?
2. 영화 <리얼 스틸>의 고철 로봇 아톰에게 복싱을 훈련시킨 전설적인 복서는 누구인가?
3.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로 가난한 예술가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무엇인가?

10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400 2. 창공 3. 10,000

퀴즈 당첨자 충남 천안시 **김승수** ● 인천 연수구 **김진주** ● 경기 성남시 **박정범**
강원 원주시 **오현진** ● 경남 창원시 **이태권** ● 서울 영등포 **고성주**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heyclickman@gmail.com(인터넷)
ipod4you@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02-506-6935 / 042-552-6935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공군과
월간 '공군'을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